차 례

머 리 말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력사를 학습하자는것은 왕이나 봉건통치배들의 력사를 알자는것이 아니라 우리 인민의 투쟁의 력사, 창조의 력사를 알자는것입니다.》

우리가 력사를 배우는것은 조선혁명을 잘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날 왕이나 봉건통치배들의 력사가 아니라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알아야 한다.

중학교 4학년에서는 발해와 후기신라에 이어 10세기초에 우리 나라 판도우에 첫 통일국가로 서서 거의 500년간 존재했던 고려시기의 력사를 배운다.

고려시기에도 역시 우리 인민들은 외래침략자들을 용감하게 물리치고 경제와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나라의 위력과 민족의 슬기를 세상에 널리 떨치였다.

그러므로 고려시기 력사는 오래기도 하고 자랑도 많아 조선력사상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더 깊이 간직하게 하는 고려시기 인민들의 투쟁과 창조의 력사를 잘 배워야 한다.

제1장. 고려의 국토통일과 발전

제1절. 고려의 성립과 국토통일

1. 왕건에 의한 고려의 성립

우리 나라 력사에 《일목대왕의 쇠방망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일목대왕이라고 하면 한쪽눈만 있는 대왕이라는 뜻으로서 궁예를 말하며 쇠방망이는 그의 폭압정치가 가혹하여 쇠몽둥이로 정치를 하였다는데서 유래된 말이다.

901년 태봉국의 왕이 된 궁예는 수만명의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철원에 둘레가 40리나 되는 긴 성을 쌓고 그안에 화려한 궁전과 관청, 절간들을 지었다. 그는 건설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과 재물을 짜내기 위하여 인민들에 대한 착취를 더욱 강화하였다.

궁예는 죄없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잡아죽이는 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궁예는 신라왕실에 대한 앙심으로부터 신라사람이라면 남녀로소 가리지 않고 모조리 잔인하게 죽였다.

궁예는 제놈의 죄행과 인민들에 대한 가혹한 착취행위를 가리우기 위하여 자기를 《산 부처》라고 떠벌이면서 사람들을 얼려보려고 꾀하였다. 이른바 《산 부처》라는것은 일정한 시기에 부처가 사람으로 나타나 인민들을 불행과 고통에서 구원해준다는 허황하기 그지없는것이였다.

궁예는 모든 사람은 자기를 떠받들고 자기에게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불교를 무조건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고 그것을 어길 때에는 가차없이 쇠몽둥이로 때려죽이였다.

궁예의 포악한 통치는 인민들의 증오와 격분을 불러일으켰다.

인민들은 궁예를 비롯한 새로운 착취자들을 반대하여 투쟁에 일떠서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때 태봉국내부에서는 새로운 세력이 날로 강해지고있었다. 그것은 태봉국에서 출중하고 인망있는 사람으로 알려진 왕건의 세력이

였다.

송악군(개성)의 토호로서 큰 세력을 가지고있던 왕건은 궁예의 부하가 된 이후 뛰여난 무예와 군사적통솔력으로 태봉국의 위력을 떨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궁예의 광신적인 횡포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니 민심은 물론 대신급벼슬아치들까지도 점점 왕건의 편으로 넘어오고있었다.

드디여 918년 왕건은 태봉국의 장수들인 홍유, 배현경 등과 함께 1만여명의 군대를 동원하여 정변을 일으키고 왕궁을 포위공격하였다. 급해맞은 궁예는 놀라서 옷도 입지 못하고 도망치다가 인민들에게 붙잡혀 처단되였다.

태봉국을 멸망시킨 왕건은 나라이름을 고려라고 고치고 수도를 개경(개성)으로 옮기였다.

고려봉건국가의 성립은 장차 한 강토에서 살려는 인민들의 통일념원을 실현시킬수 있는 중요한 사변으로 되였다.

2.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

1) 고려의 국토통일정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동족의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려던 고구려의 지향은 10세기초에 창건된 고려에 의하여 계승되였다.》

918년 고려가 성립되던 시기를 전후하여 인민들속에서는 통일지향이 그 어느때보다 급격히 높아졌다.

고려의 새 집권자들도 국토통일문제를 중요정책으로 내세웠다.

고려봉건정부는 919년에는 평양을 개경 다음가는 중요한 곳이라고 하여 서경이라고 이름을 고치고 다른 지방과는 달리 중앙기관을 모방한 통치기구들을 설치하였다.

국왕도 해마다 일정한 기간 그곳에 나가있었다.

그 목적은 서경에 의거하여 북방방비를 강화하며 특히는 앞으로 여기에 수도를 옮기고 그를 거점으로 옛 고구려땅까지 다 차지한 강국을 일떠세우려는데 있었다.

고려는 서북 및 동북지방에로의 진출도 강화하였다.

고려가 자기의 의도대로 서북지방을 개척해나갈수 있었던것은 전적

으로 인민들의 꾸준한 노력에 의한것이였다.

이러한 지향을 반영하여 새로 선 고려는 신라가 차지하고있던 대동강이남지역의 주민들은 물론 멀리 북쪽에서 이주하여온 발해의 유민들까지도 포섭하여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려나갔다.

2) 북방진출과 발해유민포섭

평양은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성지이다.

새로 형성된 고려가 평양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것은 성립직후인 918년 9월 여기에 대도호부를 설치한 때부터였다. 그것은 이곳이 서북지방의 중요한 요충지일뿐아니라 첫 고대국가였던 고조선과 동방의 강대국이였던 고구려의 수도였다는 전통적인 지위를 생각한데 있었다.

고려는 980년대까지 대동강북쪽지대에 모두 50개의 성을 새로 쌓거나 보수하고 이 일대의 방비를 강화하였다.

고려의 북방진출이 한창 진행되고있던 926년 발해가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고려는 원래 압록강이남지역을 차지한 뒤 포섭하는 방법으로 발해를 통합할 계획이였다. 때문에 고려는 동족의 나라인 발해와 동맹관계를 유지해왔었다. 그러나 발해가 멸망한 다음부터는 무력으로 거란침략자들을 몰아내고 고구려－발해의 옛 땅을 통합할것을 계획하였다.

고려는 거란의 침략기도가 날로 강화되는속에서 서북방진출을 더욱 다그치는 한편 고려경내로 들어오는 발해사람들을 적극 포섭하였다.

자기 나라가 무너지자 발해사람들은 옛 땅을 찾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렸는데 투쟁이 실패하거나 불리해지면 동족의 나라인 고려로 들어왔다. 926년 7월 발해의 왕세자였던 대광현도 수만명을 데리고 고려에 찾아왔다.

발해사람들이 고려로 들어온것은 같은 피줄을 이은 고려사람들과 힘을 합쳐 거란침략자들을 몰아내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고려는 찾아오는 발해사람들을 혈육의 정으로 받아들여 서북지방에 안착시켜 살도록 하였다.

발해사람들의 고려에로의 대량적인 이주와 고려의 적극적인 포섭은 예로부터 같은 피줄을 이은 한겨레가 하나의 주권밑에 더욱 굳게 단합되는 과정이였으며 외적을 물리치고 옛 고구려－발해땅을 되찾으려는

공통된 지향에 기초한것이였다.

이것은 국토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튼튼한 밑천으로도 되였다.

3) 신라 경순왕의 투항

935년은 우리 나라 중세력사에서 중대한 사변이 있은 해이다.

보기 드문 어마어마한 긴 행렬이 고려왕궁에 당도하자 고려왕인 왕건이 마중까지 나가 그를 맞아들였다.

그것은 바로 신라의 마지막왕 경순왕(김부)이 고려에 투항해오는 행차였다.

왕건은 투항해온 경순왕에게 종전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많은 례물도 주도록 하였다.

그러면 근 1000년의 왕조력사를 가진 신라가 어떻게 되여 고려에 통합되게 되였는가.

지금으로부터 1000여년전 우리 나라는 대동강이남지역에서 출현한 후삼국으로 하여 정세가 매우 복잡하였다.

이러한 때 나라를 세운 왕건은 국토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북방진출을 강화하는 한편 후백제와 신라를 통합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다.

이때 신라는 이미 약해져 내리막길을 걷고있었다.

이런 형편에서 고려는 신라를 적극 보호해주고 아량을 보여 고려에 적극 의탁하게 한 다음 스스로 투항해오도록 하기 위한 전술을 썼다. 그것은 후백제가 고려에 앞질러 신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그다음 고려마저 통합할 야심을 품고있었기때문이였다.

만일 후백제가 신라를 병합한다면 그것은 고려의 국토통일실현에 큰 장애로 될수 있었다.

고려는 후백제의 공격으로부터 신라를 적극 보호해주었다. 920년 10월 후백제가 신라의 여러 군을 공격하여 점령하였을 때 신라의 요청에 따라 고려는 군대를 보내여 후백제군을 물리쳤다. 927년 9월에도 후백제군이 신라의 수도로 쳐들어오자 고려는 즉시 1만명의 군사를 파견하였으며 뒤이어 왕건자신이 직접 5 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출동하였다.

고려는 이에 기초하여 신라를 통합하기 위한 직접적단계에 들어갔다. 여기서 중요한 계기로 된것은 고려가 고창군(안동군) 병산에서 후

백제군을 크게 격파한것이였다.

병산전투후 110여개의 신라의 성들이 련달아 고려에 투항해왔다. 또 신라왕은 고려왕에게 두차례나 편지를 보내여 만나줄것을 요청하였다. 이리하여 왕건은 931년 2월에 신라의 수도 경주를 방문하였다.

이러한 때 후백제왕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여왔다.

모든 정세로 보아 앞으로 고려에 의하여 국토가 통일될것이 명백하였고 이제 더 나라를 유지해나갈만 한 힘도 없게 된 신라의 경순왕은 국토를 고려에 넘겨주고 항복할것을 결심하였다.

이때 왕태자를 비롯한 신라의 일부 관리들은 나라의 통일을 바라는 인민들의 념원을 보지 못하고 《충의》 하나만 들고나서며 국토통일을 반대하였다.

왕태자는 끝내 경순왕을 따르지 않고 금강산으로 들어가 삼으로 만든 베옷을 입고 숨어살았다고 한다. 그를 력사에서는 마의태자라고 한다.

그러나 국토통일을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은 막을수 없었으며 드디여 935년 11월 신라는 고려에 통합되였던것이다.

신라의 멸망과 함께 전해지는 마의태자이야기는 대세의 흐름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에 등을 돌려댈 때 력사의 반역으로 된다는 교훈을 주고있다.

4) 후백제 신검의 항복

국토통합을 위한 싸움에서 고려의 주되는 적수는 후백제였다. 그것은 이미 약해져 내리막길을 걷고있던 신라는 크게 싸움대상으로 되지 않았기때문이였다.

고려는 나라를 세운 첫 시기에 자기의 힘을 키우느라고 될수록 후백제와의 싸움을 피하였다. 일정하게 력량이 강화됨에 따라 925년부터 공세에로 넘어갔다.

그러나 아직 두 나라 힘이 비슷한 까닭에 어느 편도 상대방을 결정적으로 이기지 못하였다.

고려는 930년에 후백제에 대한 결정적인 공세에로 넘어가 마침내 고창군 병산에서 대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는 고려의 막강한 국력을 크게 보여주었고 고려가 다름아닌 국토통합의 유력한 세력이라는것을 과시하였다.

고려는 후백제에 대한 공격을 련속 들이대여 934년에는 운주(홍성)에서 후백제군을 또다시 크게 격파하고 웅주(공주)이북의 30여개 성을 차지하였다.

정세는 고려에 더욱 유리하게 전변되여갔다.

고려의 드센 공격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던 후백제는 왕실안에서 벌어진 권력싸움으로 하여 더욱 급속히 약화되게 되였다.

견훤은 10여명의 아들중에서 넷째아들인 금강을 제일 신임하였으며 그에게 왕자리를 물려주려고 하였다. 이것을 눈치챈 맏아들 신검은 935년 3월에 정변을 일으켜 견훤을 금산사라는 절간에 잡아가두고 동생 금강을 죽인 다음 제가 스스로 왕자리를 차지하였다.

몇달동안 절간에 갇혀있던 견훤은 요행 몰래 그곳을 빠져나와 라주를 거쳐 고려에 투항하였다.

왕건은 그가 오래동안 싸우던 적이였으나 일단 투항해온 이상 지난날의 적대적감정을 풀고 40여척의 군함을 보내여 맞아들이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높은 벼슬을 주고 많은 땅과 노비까지 주었다.

후백제안에서 일어난 권력싸움은 후백제를 더욱더 궁지에 몰아넣어 그 멸망을 촉진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936년 9월에 일선군(경상북도 선산)에서 고려와 후백제와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이 벌어졌다.

후백제통치배들은 기울어진 저들의 운명을 건져보려고 마지막발악을 하였으나 고려군의 총공격을 이겨낼수 없었다.

고려군은 나머지 후백제군을 황산군(충청남도 대덕군)까지 추격하여 소멸하였다.

더는 사태를 걷잡을수 없게 된 후백제의 신검은 항복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후백제는 멸망하였다.

고려는 수십년간에 걸친 통합정책을 통하여 마침내 후백제와 신라의 전 지역과 주민 그리고 옛 고구려－발해의 적지 않은 령토와 주민을 하나의 주권밑에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력사에 고려라는 첫 통일국가가 서게 되였다.

고려에 의한 국토의 통일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통일된 하나의 민족으로 한강토우에서 살게 되였다.

제2절. 고려의 통치제도

1. 3성 6부와 5도 량계

3성 6부란 고려의 중앙통치기구가 3개의 성과 6개의 부를 기본으로 이루어졌던데서 불리워진 말이다.

우리 나라 력사상 첫 통일국가로 등장한 고려는 강대하였던 고구려의 국가체제를 이어받아 황제국가의 틀을 갖추었다. 국왕을 황제라고 부르고 수도를 황도라고 부르면서 모든 권력을 국왕에게 집중시켰는데 그를 위하여 중앙에 설치한것이 3성 6부였다. 그러므로 3성 6부는 고려중앙통치기구에서 기본으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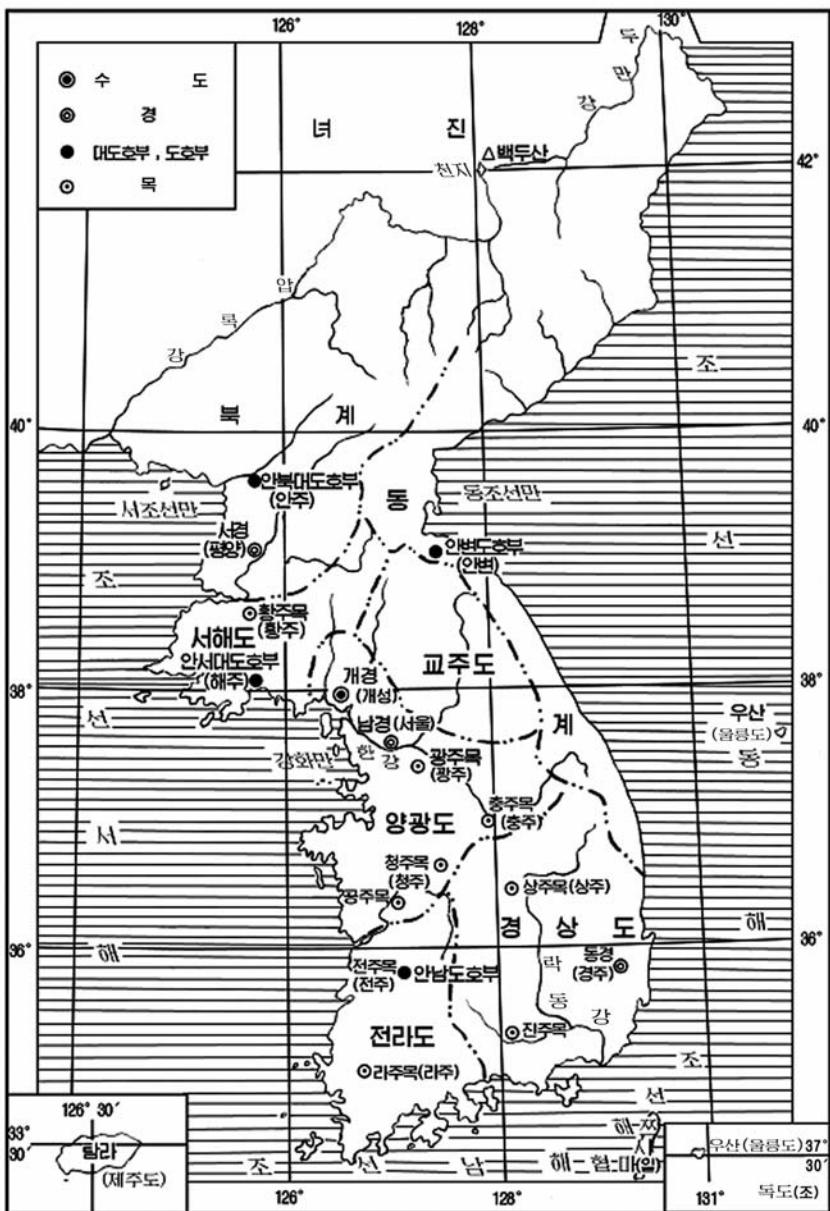
3성이란 중서성, 문하성, 상서도성을 통털어 이르는 말이다. 이 세개의 성은 국왕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며 그 집행을 감독통제하는 일을 맡아보았다.

6부라고 하면 리부, 병부, 호부, 형부, 례부, 공부를 통털어 부르는 말이다.

리부는 봉건관리들을 임명하고 해임하는 일, 병부는 군사와 관계되는 일, 호부는 토지와 인민을 틀어쥐고 조세와 공물을 받아내는 일, 형부는 인민들에게 형벌을 들씌우고 노비들을 장악통제하는 일, 례부는 국가적인 행사들과 지배계급의 자식들에 대한 교육, 대외관계 등을 맡아보는 일, 공부는 건축과 수공업을 장악하고 왕실과 귀족들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일 등을 맡아보았다.

이밖에도 중앙에는 인민들을 억압착취하기 위한 많은 관청들이 있었다.

고려봉건국가는 지방통치기구로서 5도 량계도 설치하였다.

5도 량계란 지방행정구역을 5개의 도와 두개의 계로 나누었던데서 불리워진 말이다.

11세기 고려행정구역도

고려봉건국가는 넓어진 령토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통치체계를 여러번 개편하였는데 11세기에야 기본적으로 그 면모가 갖추어지게 되였다.

5도라고 하면 5개의 도인 서해도, 교주도, 양광도, 경상도, 전라도를 통털어서 부른 말이며 량계는 동계(강원도, 함경도일대), 북계 또는 서계(서북지방)를 가리켜 부른 말이다. 수도가 위치한 지역은 도에 포함시키지 않고 경기라고 불렀다.

도는 지방통치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군관구, 감찰구였다. 고려봉건국가의 실제적인 중심지는 4경, 3도호부, 8목이였다.

4경은 수도 개경(개성)과 서경(평양), 남경(양주), 동경(경주) 등 4개의 큰 도시들이였고 3도호부는 안북(안주), 안서(해주), 안변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들이였다.

그리고 8목은 황주, 광주(경기도), 충주, 청주, 전주, 라주, 진주, 상주 등 큰 고을들이였다.

지방의 매개 행정단위들은 국왕이 직접 내려보낸 관리들이 통치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로부터 만들어낸 정권이란 대체 어떠한 정권입니까? 그것은 인민의 참가없이 세운 부자들의 정권이며 다수를 반대하는 소수의 불공정한 정권입니다.》

고려봉건국가의 통치기구는 철저히 반인민적이며 반동적인 정권이였다. 그것은 인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극소수 착취계급이 저들의 리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강제로 만들어낸 정권이기때문이였다.

봉건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꾸려진 이러한 통치기구를 통하여 인민들을 지배하고 착취하였다.

고려봉건국가는 중앙 및 지방통치기구를 설치하는것과 함께 군대제도와 역참제도, 봉수제도도 제정하였다.

역참제도는 중앙의 지시를 아래에 전달하고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을 제때에 장악하며 관리들의 출장을 보장하기 위한 교통련락체계였다.

봉수제도는 나라의 변방과 중앙을 련결하기 위하여 산봉우리에 봉화대를 설치하고 봉화를 올려 신호하는 체계였다.

2. 전시과제도

전시과제도란 봉건국가가 량반관리들에게 그 등급에 따라 땅을 나누어주고 거기에서 농민들이 생산한것을 관리들이 받아먹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전시과란 말은 관리들을 과(등급)별로 나누어 토지와 산판을 준다고 하여 《발 전》자에 《땔나무 시》자, 《과목 과》자를 따서 붙인 말이다.

봉건사회에서는 토지가 기본생산수단이므로 땅을 다루는 농민들은 기본생산자대중을 이루고있었다.

따라서 봉건국가의 기본착취대상은 토지를 다루는 농민들이였다.

그러므로 봉건통치배들은 토지와 농민들을 틀어쥐여야만 그들을 착취해가면서 봉건국가를 유지해나갈수 있었고 저들의 호화로운 생활도 보장할수 있었다.

976년에 실시한 전시과제도에 의하면 관리들을 크게 18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가장 높은 1등급(1과)관리들에게는 전(논밭)과 시(산판)를 각각 110결씩 주었으며 제일 낮은 18등급(18과)관리들에게는 21결의 논밭과 10결의 산판을 주었다.

봉건국가로부터 논밭과 산판을 받은 량반관리들은 조세라는 이름밑에 농민들로부터 많은 곡식을 빼앗았으며 농민들을 시켜 산판에서 나무를 해오게 하였다.

전시과제도는 량반관리들이 농민들을 착취해가면서 잘살수 있도록 보장해준 반인민적인 제도였다.

봉건국가는 전시과제도를 통하여 온 나라의 토지를 관리들에게 다 나누어준것이 아니라 다만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조세착취의 권한을 관리들에게 나누어주었다.

여기서 봉건국가가 조세를 착취하는 땅을 공전이라고 불렀고 개별적인 량반관리들에게 넘겨준 땅을 사전이라고 하였다.

전시과제도에 의하여 사전을 받은 량반관리들은 그 땅에서만 조세를 받아먹을수 있었으나 점차 그 제도가 문란해짐에 따라 나중에는 국가가 관할하는 공전까지도 자기의 사전으로 만들기 시작하였다.

제3절. 고려－거란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반거란전쟁은 고려에 의하여 국토의 통일이 실현된 이후 우리 인민이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적의 침공을 짓부시고 민족의 존엄과 슬기를 떨친 대표적인 첫 투쟁이였습니다.》

반거란전쟁은 고려에 의한 국토통일후 우리 인민이 단합된 힘으로 외적의 침공을 물리친 첫 싸움이였다.

이 투쟁에서 고려인민들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거란의 대규모적인 침공을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1. 안융진전투와 강화담판

안융진은 안주에서 서쪽으로 약 65리 떨어져있는 청천강하구의 크지 않은 토성이였다.

바로 이 성이 지금으로부터 1 000여년전 거란의 1차침입을 격파하기 위한 대결전장으로서 전쟁승패의 결정적역할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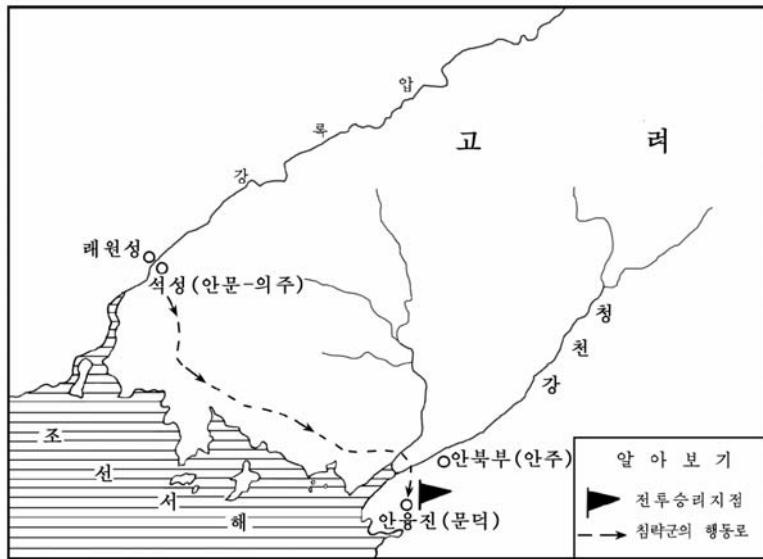
993년 10월 수십만의 거란군이 고려에 쳐들어왔다. 적들의 침입목적은 고구려－발해의 옛 땅을 되찾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북방진출을 막고 나아가서 고려를 저들의 지배밑에 넣자는데 있었다.

고려에서는 이미 그해 8월에 적들의 움직임을 알고 수십만의 방어군을 조직하는 등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었다.

고려의 방어군을 총책임진것은 서희장군이였고 그 지휘부는 안북부(안주)에 있었다.

압록강을 건너선 적들은 오늘의 평안북도 산간지대를 따라 밀려들었다.

기고만장하여 달려드는 침략군의 코대를 꺾어놓고 전쟁정세를 돌변시킨 전투는 안융진에서 벌어졌다. 여기에는 중랑장 대도수가 지휘하는 수백명의 군대가 있었을뿐이였다. 그러므로 적들은 안융진이 방어선에서 제일 약한 고리인줄 알고 덤벼들었던것이다.

적들은 단숨에 안융진을 점령하려고 많은 병력을 풀어 하루에도 여러차례 성을 포위공격하였다.

거란의 제1차침입과 그 격퇴도

성을 지키고있던 고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대도수의 지휘밑에 결사전을 벌려 엄청나게 우세한 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주었다.

궁지에 빠진 적들은 하는수없이 담판을 제기해왔다.

고려군은 적들을 군사적으로 강하게 눌러놓은 유리한 환경에서 담판에 나서게 되였다.

그리하여 고려측 대표 서희와 적장인 소손녕사이의 담판이 적진속에서 진행되였다.

서희는 수십만의 대군이 몰켜있는 삼엄한 적진속에 들어가서도 당당하게 행동하였다.

담판에서 서희는 먼저 적들이 아무런 리유없이 남의 나라에 침입한데 대하여 엄중히 항의하고 적들의 횡포성에 대하여 규탄하였다.

서희는 계속하여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국가이므로 나라이름도 고려라고 불렀다고 하면서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거란의 동경도 고려의 령토로 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아니라 고려가 송나라와 관계를 가지든 거란과 관계를 가지든 그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것이지 너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아

도 된다는것을 강력히 오금박아놓았다.

적들은 움직일수 없는 력사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사리정연하고 론리있게 들이대는 서희장군의 주장앞에서 완전히 말문이 막혀버렸다.

적들과의 담판에서 고려측 대표가 승리를 거둘수 있었던것은 애국적인 군인들과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군사적승리가 안받침되여있었기때문이였다.

담판이 끝나자 적장은 처음에 그처럼 거만하게 행동한것과는 달리 서둘러 큰 연회를 차리고 서희가 돌아올 때는 락타 10필, 말 100필, 양 1 000마리 그리고 여러가지 비단천 500필을 선물로 주면서 굽신거렸다.

이것은 저들의 군대가 고려령토에서 물러갈 때 고려군의 추격과 기습이 없기를 바란데서 나온 비겁한 행동이였다.

이리하여 애국적이고 용감한 고려인민들은 거란의 제1차 침입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2. 흥화진과 애전에서의 승리

1010년 11월 거란왕 성종이 40만이나 되는 대군을 끌고 압록강을 건너왔다. 첫 침략에서 크게 패한 적들은 1차 침입때와는 달리 압록강하류를 건너 고려 서북지방의 중요한 요새들을 강점한 다음 개경으로 달려들어 왕을 사로잡아 항복을 받으려고 하였다.

압록강을 건너온 적들은 이리떼처럼 흥화진으로 달려들었다. 이 성은 압록강연안의 제1선에 위치한 관문요새였다.

성안에는 도순검사(방면군지휘관) 양규가 지휘하는 고려군대와 인민이 있었다.

침략자들은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성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성안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들의 거듭되는 공격을 물리쳤다.

흥화진의 군대와 인민들은 7일동안이나 수적으로 우세한 적 주력부대의 발악적인 공격과 음흉한 회유책동을 단호하게 물리치고 성을 고수하였다.

성을 점령하지 못한 적들은 할수없이 이 일대에 총병력의 절반이나

되는 20만의 군대를 남겨둔채 남쪽으로 계속 기여들었다.

적들은 통주, 곽주, 안주, 서경 등지에서도 커다란 타격을 받았으며 그 일대를 점령하지 못한채 남쪽으로 계속 기여들어 1011년 1월 1일에는 개경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개경은 강감찬장군의 청야전술에 의하여 텅 비여있었다.

적들은 낟알 한알 얻을 길이 없었고 우물들은 돌과 오물로 메워져있어 당장 목을 추길 물마저 없었다. 게다가 집집마다 구들장을 들춰냈기때문에 잠간 휴식할만 한 곳도 없었다. 적들을 기다리는것은 오직 죽음뿐이였다.

뿐만아니라 적들은 개경부근 여러성들에 집결되여있는 고려군의 기습을 받아 매일같이 무리죽음을 내였다. 적들은 그제야 이것이 무서운 함정이라는것을 깨달았다. 겁에 질린 적들은 개경을 강점한지 10일만에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얼마나 혼쌀이 났는지 감히 서해안 벌방지대로 도망칠념을 하지 못하고 황해도와 평안도의 산골길을 따라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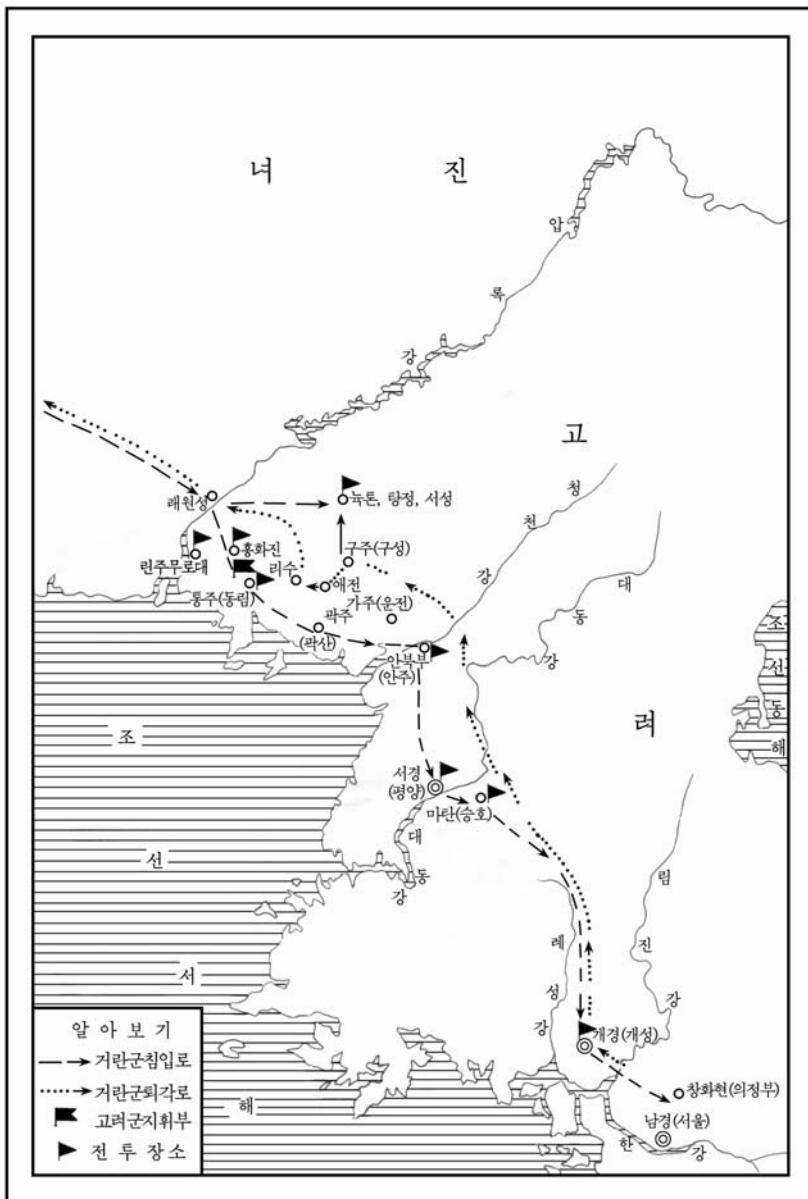
고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도망치는 적들의 길목을 막고 통쾌한 복수전을 들이대였다.

1월 28일 애전에서는 양규, 김숙흥 두 장군이 거느린 고려군과 거란왕이 거느린 적의 주력군사이에 판가리싸움이 벌어졌다. 애전은 선천동쪽에 있는 자그마한 성이였다. 적들은 이미 구주에서 된타격을 받고 그 서남쪽에 있는 애전방향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였다.

길목을 지키고있던 고려군은 퇴각하는 적 선봉부대가 나타나자 불의의 기습으로 1 000여명이나 소멸하였다.

잠시후 거란왕이 이끄는 대부대가 나타나 전투는 매우 치렬해졌다.

양규, 김숙흥 두 장군이 이끄는 고려군은 다른 부대들과 협동하여 적을 포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무로대(의주 남쪽)에 있던 거란군이 전투에 보충되면서 정세가 급변하여 싸움은 더욱더 치렬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발악적으로 싸워도 승산이 없다는것을 안 적들은 완전히 넋을 잃고 무기와 말, 락타 등을 다 버린채 빈몸으로 도망쳤다.

거란의 제2차 침입과 그 격퇴도

당시 양규와 김숙흥 두 장군은 온몸에 화살이 가시처럼 박혀 숨을 거둘 때까지 싸움마당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

고려군은 퇴각하는 적들을 계속 추격하였다. 드디여 압록강가에서 적아간의 마지막 판가리싸움이 벌어졌다. 이 전투에서 수많은 거란침략군이 강물속에 처박혔다.

이로써 고려군대와 인민들은 거란의 두번째 침입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나라의 존엄과 영예를 크게 떨치였다.

3. 강감찬장군과 구주대첩

1018년 12월 소배압을 우두머리로 하는 10만의 거란침략군이 세번째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적들은 종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도중전투를 피하면서 곧바로 개경에 쳐들어가 고려왕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어리석게 타산하였다.

적들은 고려군의 주력부대들이 배치된 곳을 피해가며 다음해 1월초에는 신은현(황해북도 신계)까지 기여들어왔다.

개경까지는 앞으로 불과 100리남짓하였다. 그러나 적들은 여기에 멈춰선채 더 남쪽으로 기여들지 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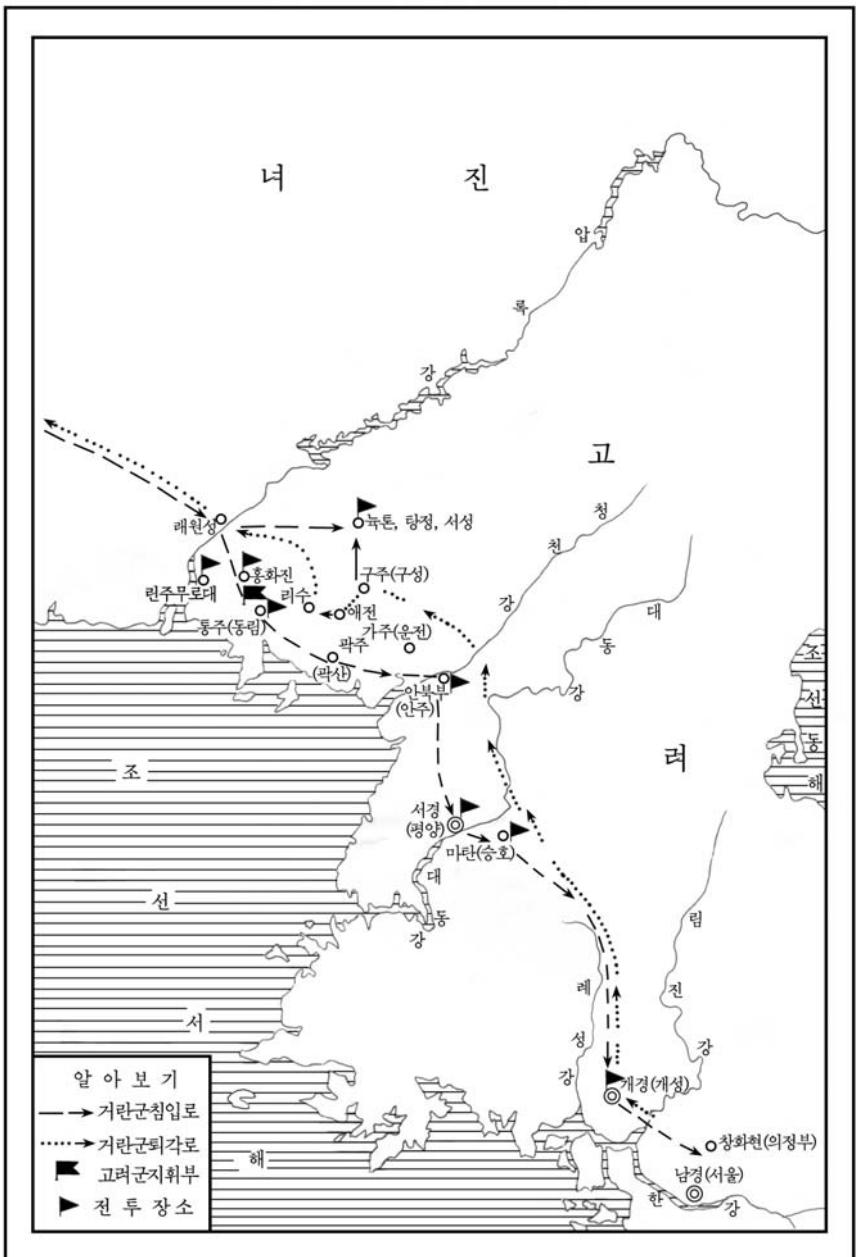
그것은 강감찬장군의 청야수성전술에 의하여 개경으로부터 북쪽 100리어간의 마을과 들판이 텅 비여 적들이 한알의 낟알과 한모금의 물도 얻을수 없었기때문이였다. 개경의 방어진도 튼튼히 꾸려져있었다. 이제 머물러있어야 죽음밖에 차례질것이 없다는것을 알게 된 적들은 마침내 침략을 개시한지 한달만에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고려의 애국적군인들과 인민들은 곳곳에서 달아나는 적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적들을 족쳐댔다. 고려군의 기습을 받은 적들은 흩어진 대오를 이끌고 허둥지둥 구주에 몰려들었다.

그러나 구주에는 이미 고려의 주력부대가 집결되여 만단의 전투태세를 갖추고있었다.

1019년 2월 1일 구주동쪽벌판에서는 거란군을 섬멸하는 마지막 큰 싸움이 벌어졌다. 이 전투는 고려의 총사령관이였던 강감찬장군이 지휘하는 고려군과 적괴수 소배압이 지휘하는 적의 총력량간에 진행된 매우 큰 싸움이였다.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치렬해졌다.

이때 개경에서부터 적들을 뒤쫓아온 1만명의 추격부대가 적들의 뒤통수를 들이쳤다.

거란의 제3차 침입과 그 격퇴도

적들은 갈팡질팡하다가 무리로 녹아났으며 살아남은 적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고려군은 적들에게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맹렬한 추격전으로 적들을 모조리 족쳐버렸다.

이리하여 적들의 시체는 구주부근의 30리 들판을 온통 뒤덮었다.

결과 10만의 군대로 칩입하였다가 겨우 살아돌아간 거란군은 수천명뿐이였다.

구주싸움은 세 차례의 전쟁과정에서 가장 큰 승리를 거둔 전투로서 반거란전쟁을 승리적으로 마감지은 의의깊은 전투였다.

력사에서 이것을 구주대첩(구주대승리)이라고 불러온다.

이와 같이 애국적인 고려인민들은 거란의 세번째 침입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다.

고려인민이 세차례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은것은 인민대중이 뜨거운 애국심을 간직하고 용감하게 싸웠기때문이였다.

거란군을 물리치는 인민들의 투쟁대오속에는 남자옷을 입고 싸움마당에서 용맹을 떨친 18살의 어린 처녀 설죽화도 있었다.

설죽화에 대한 이야기는 고려사람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고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적으로 싸웠는가를 잘 보여준다.

반거란전쟁에서 고려인민의 승리는 인민대중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한결같이 일어나 싸운다면 어떤 강한 적도 물리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제4절. 고려의 경제발전과 북방진출

1. 농업과 수공업의 발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근로대중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이며 력사의 창조자입니다. 근로대중의 창조적로동과 투쟁에 의하여 사회의 모든 물질적부가 창조되며 사회적변혁과 진보가 이룩됩니다.》

고려인민은 거의 30년간에 걸친 반거란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으나 입은 피해는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인민들은 온갖 난관을 무릅쓰고 파괴된 경제를 복구하는데 떨쳐나섰다. 전쟁의 상처는 점차 가

서지고 농업생산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인민들은 묵었던 논밭을 갈아엎고 서북지방과 바다가의 땅들을 새로 많이 일구어 부침땅면적을 늘이였다.

그리고 보습, 가래를 비롯한 소농기구들도 새로 많이 만들었다.

특히 이 시기 농민들은 새로운 농사방법인 불역전법을 받아들이였다. 그것은 한해 또는 두해씩 묵여가면서 부치던 적지 않은 땅들에 거름을 내여 논밭을 묵이지 않고 해마다 농사짓는것이였다.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와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농업생산이 늘어나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곡식을 거두어들일수 있게 되였다.

봉건정부는 농업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배길이 좋은 곳들에 큰 조세창고들을 여러개 짓고 200~1 000여섬씩 실을수 있는 큰 배들을 수많이 무어 조세로 빼앗은 낟알을 개경으로 끌어들이였다. 이것은 농업생산이 그만큼 늘어나고 봉건국가의 착취량도 불어났다는것을 보여준다.

농업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수공업도 발전하였다.

이 시기 수공업에는 관청수공업과 개인수공업자들이 경영하는 전문수공업 그리고 농민들이 진행하는 가내수공업이 있었다.

봉건국가가 운영하는 관청수공업에서는 무기와 봉건통치배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물건들을 만들었다.

그것은 이 시기 수공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봉건국가는 개경에 13개의 수공업담당 관청을 두고 그의 통제밑에 무기와 비단, 금, 은제품, 도자기, 가구, 가죽제품, 종이 그밖에 여러가지 사치품들을 만들게 하였다. 관청수공업장은 생산조건이 유리한 지방도시들에도 있었다.

당시 관청수공업장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역으로 끌려온 개인수공업자들이였다.

봉건국가는 특히 소라고 불리운 수공업마을들을 만들어놓고 여러가지 수공업품들을 만들게 하고는 그 대부분을 빼앗아내였다.

개인수공업자들의 전문수공업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들은 크지 않은 작업장을 차려놓고 가족들의 로력을 기본으로 하여 생산을 진행하였다.

개인수공업에서는 농기구, 그릇, 가마, 가구, 기와 등 생활에 요긴한것들과 그밖에 먹, 붓, 종이와 같은 문화용품들도 생산하였다.

개인수공업자들은 자기가 생산한 물건의 많은 몫을 봉건국가에 공물로

바치고도 관청수공업장에 부역으로 끌려나가서 일해야 하였다.

농민들은 농사일을 하면서 짬시간에 가내수공업을 하였다.

그들은 집안살림살이에 필요한 물건들과 봉건국가에서 강요하는 공물들을 생산하였다. 생산된 주되는 물품은 베, 모시, 명주 등의 옷감이였고 그밖에 곡식짚이나 나무가지들을 엮어만든 그릇들과 일용품들이였다.

이 시기 인민들의 창조적지혜에 의하여 수공업기술이 높이 발전하여 당시로서는 뛰여나고 훌륭한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 종이, 먹은 다같이 천하의 명물로 다른 나라에까지 그 이름이 알려졌다.

이밖에 고려의 모시도 이름난 특산물이였다.

모시는 발이 가늘고 눈같이 흰데다가 다림발이 잘 서서 여름옷감으로서는 더없이 좋은것이였다. 곱게 짠 가는 모시는 옷 한벌감을 밥바리속에 넣을수 있을만큼 얇았다. 또한 빨수록 색이 희여져서 오래 입어도 낡은감이 나지 않았다.

모시로 옷을 지어입으면 보는 사람들에게도 산뜻하고 시원한감을 주어 그 수요가 매우 높았다.

2. 금속화페의 리용

고려인민들의 창조적로동으로 생산이 장성하여 상품류통이 활발하여짐에 따라 금속화페를 만들어쓰게 되였다.

11세기 국내상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수도 개경과 지방도시들에는 여러가지 간판을 단 상업지구들이 세워지게 되였다. 여기서는 갖가지 비단천, 모직천, 명주, 베천과 갖가지 일용품, 공예품, 수산물과 약재, 농산물들이 판매되였다.

또한 개인장사군들이 모이는 장소들이 생겨나고 도시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나타났다.

상품류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상품교환에서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되였다. 그것은 당시 돈처럼 쓰이던 쌀과 베천이 보관과 운반에 불편하였기때문이였다.

그리하여 금속화페가 사용되게 되였다.

봉건국가는 1097년 돈을 부어만드는 관청인 주전도감을 설치하고 쇠돈을 만들도록 하였다. 여기서는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으로 불리우

는 금속화페가 수많이 나오게 되였다. 직경이 2cm인 둥근판가운데 4각형의 구멍이 뚫려있어 운반이나 보관에도 편리하였다.

이러한 쇠돈외에도 은으로 만든 돈도 사용되였다.

봉건국가는 금속화페를 장려하기 위하여 1102년에는 쇠돈 1만 5 000관을 만들어 높은 관리들로부터 상층군인에 이르기까지 바꾸어주어 먼저 통치배들속에서 쓰도록 하였다. 그리고 개경의 거리들에도 음식점과 상점을 많이 내오게 하여 쇠돈을 널리 쓰게 하였다.

1104년에는 지방에서도 음식점을 설치하여 쇠돈을 쓰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상품류통이 활발히 벌어져 국내상업과 생산은 크게 발전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금속화페를 통하여 상업에 대한 통제와 수탈을 강화하고 저들의 폭리를 위하여 은화에 구리를 섞어 돈의 가치를 떨구게 하였다.

때문에 인민들속에서는 계속 쌀과 베가 중요한 교환수단으로 되였다.

결과 금속화페는 그 사용이 점차 중단되게 되였다.

3. 무역항－벽란도

례성강하류에 벽란도라는 포구가 있었다.

이곳은 지금으로부터 900여년전 세계의 여러 나라 상인들과 무역을 하던 이름난 무역항이였다.

고려의 수도 개경과 가까운 곳에 있던 벽란도에는 송나라와 일본을 비롯한 외국의 상선들이 그칠새없이 찾아왔다.

송나라와의 무역은 사신들이 서로 오고갈 때 두 나라 왕실사이에 례물을 주고받는 형식으로도 하였고 개인상인들이 오고가며 하기도 하였다.

고려에서 송나라에 많이 수출한것은 자기, 비단, 인삼, 종이, 먹, 붓, 돗자리, 부채 등이였다. 이런 물품들은 송나라에서 고려자기, 고려비단, 고려인삼 등으로 불리우면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뿐만아니라 그것들은 송나라에서 다시 남방과 중앙아시아 더 멀리로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 다시 수출되여 그 이름을 날리였다.

고려가 송나라로부터 사들인것은 색다른 비단과 약, 사치품들이였다.

일본상인들도 벽란도에 와서 자주 무역을 하였다.

그들은 류황과 동, 귤 같은것을 싣고와서 고려의 비단, 공예품과 바꾸어갔다.

이 시기 고려의 이름이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머나먼 대식국(아라비아반도와 이란)의 상인들까지 열대지방에서 나는 향료, 물감, 상아 등을 가지고와서 고려의 비단과 바꾸어갔다.

한편 륙로를 통하여 북쪽의 녀진, 거란과의 무역도 활발해졌다.

벽란도는 중국에 있었던 여러 나라들과의 거래를 이어주는 중요한 중개무역항이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일본상품들이 고려를 거쳐 거란과 송나라로 들어가고 송나라의 상품들이 고려를 통하여 일본으로 건너갔다.

고려의 수도 개경에는 한번에 수백명의 다른 나라 사람들을 받아들일수 있는 려관인 벽란정이 꾸려져있었으며 벽란도에는 수많은 무역선들로 하여 돛대들이 숲을 이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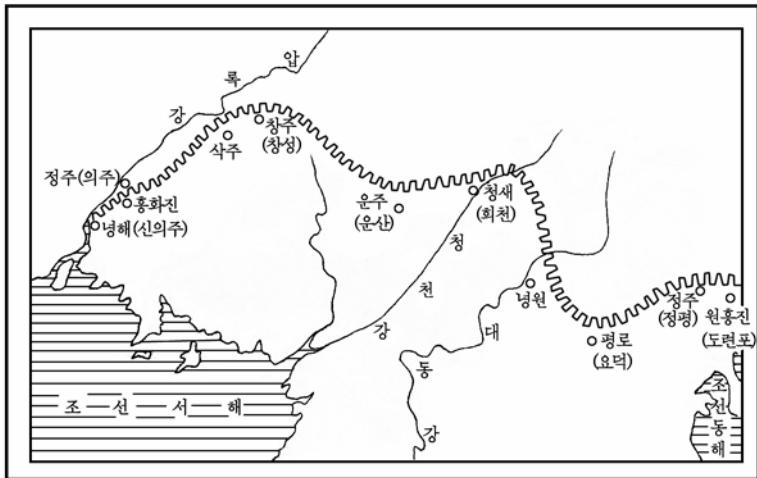
이처럼 고려는 대외무역이 크게 발전함으로써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되고있었으며 그 과정에 고려(코레아)라는 이름은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말로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4. 천리장성

천리장성이란 고려시기 우리 인민들이 북방으로 달려드는 외적들을 막기 위하여 쌓았던 1 000여리에 달하는 성을 말한다.

고려－거란전쟁이후에도 거란과 녀진인들은 고려의 북부변경지대를 자주 침입하였다. 고려에서는 이러한 정세에 대처하여 1033년부터 1044년사이에 대규모적인 장성을 쌓았다.

이것은 조선서해안의 압록강하구로부터 시작하여 조선동해안의 정평 도련포에 이르는 1 000여리의 구간에 약 8m의 높이를 가진 성벽을 쌓는 방대한 공사였다.

또한 높고 험한 산발들을 넘어서 돌을 져날라다 쌓아야 하는 매우 어려운 공사였다.

고려의 천리장성도

게다가 공사는 아직 사람들의 발길도 잘 미치지 못했던 깊은 산속에서 벌리는 일이였으므로 생활조건이 아주 나빴다.

그러나 고려인민들은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려는 애국적열의를 안고 12년동안이나 온갖 불리한 조건들을 이겨내면서 공사를 훌륭히 해제꼈다.

천리장성의 성벽은 돌로 쌓았고 부분적인 구간에만 흙으로 쌓았다. 중요한 지점들에는 작은 성을 두어 방어거점으로 삼았으며 방향에 따라 필요한 곳에는 2중으로 겹성도 쌓았다.

천리장성이 쌓아진 결과 나라의 안전은 훨씬 더 믿음직하게 다져지게 되였다.

5. 9성설치

9성이란 고려가 나라의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을 되찾은 다음 함주, 의주, 통태진, 평융진, 복주, 영주, 웅주, 길주, 공험진에 쌓은 9개 성을 말한다.

9성설치는 고려인민들이 옛 고구려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었다.

12세기초에 이르러 고려의 북쪽정세는 다시 긴장해졌다.

11세기 후반기에 쑹화(송화)강류역에 있던 녀진의 한개 세력이 급속히 자라나 거란이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의 녀진인부락들을 통합하면서 마침내 고려의 천리장성일대까지 자기의 세력을 뻗치였다.

고려는 이에 대처하여 천리장성의 방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여러번에 걸쳐 정주성부근의 적들을 공격하여 그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후 고려는 녀진의 침입을 막고 정평이북의 옛 고구려땅을 되찾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으로서 17만명으로 된 큰 규모의 원정군을 조직하였다.

1107년 12월 고려군의 주력부대는 윤관의 지휘밑에 정평을 떠나 장성밖으로 진격하고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수군도 도련포를 떠나 북쪽으로 출동하였다.

강대한 고려의 원정군이 날랜 기병을 앞세우고 장성을 넘어서자 녀진인들은 그 위력에 눌리워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달아났다.

고려군은 보름남짓한 원정기간에 135개의 녀진인부락을 짓부시고 약 6 000명의 적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고려는 그후 적들을 계속 추격하여 멀리 두만강을 건너 선춘령(라오허이<로흑>산 가까운 곳)까지 진출하였다. 고려는 되찾은 동북지방의 넓은 지역에 9성을 쌓고 주민들을 옮겨가 살게 하였다. 그리고 함주에 9성지방을 관할하는 대도독부를 두고 영주, 복주(단천), 웅주, 길주, 공험진에는 각각 방어사를 두었으며 그밖에 의주, 통태진, 평융진에 성을 쌓았다.

고려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그후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떨쳐나섰다.

이때 고려군의 드세찬 공격으로 멀리 북쪽으로 쫓겨갔던 녀진인들이 력량을 보충해가지고 수만명의 대병력으로 다시 달려들었다.

웅주(라선시)를 비롯한 북쪽의 여러 성들에서는 련일 치렬한 싸움을 벌려 적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비겁한 봉건통치배들은 녀진인들의 집요한 침략에 겁을 먹고 9성을 적들에게 내주고 철수하도록 하는 배신행위를 감행하였다. 그리하여 인민들이 피흘려싸워 거둔 성과는 수포로 돌아가고말았다.

고려의 동북지방원정과 9성설치는 녀진의 침략기도를 앞질러 꺾어버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들의 숙망을 다소나마 실현하였던 점에서 일정한 력사적의의를 가지였다.

제2장.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 대농민전쟁, 고려-봉건몽골전쟁

제1절. 고려의 무신정권

1. 묘청의 정변

고려중엽이였던 12세기경에 개경은 리자겸의 반란으로 왕궁이 불타버리면서 왕의 기운이 사라져버리고 그대신 서경은 왕의 기운이 도는 곳이라는 미신적인 이야기가 퍼지고있었다.

이것은 당시 묘청을 비롯한 서경출신의 량반관리들이 왕을 끌어당기기 위하여 꾸며낸 여러가지 이야기중의 하나였다. 지어 이들은 서경에 수도를 옮기면 왕실의 운명이 연장되고 이웃 여러 나라들이 스스로 항복해올것이라는 주장까지 하였다.

그것은 서경출신 량반관리들이 수도를 개경에서 서경으로 옮겨 개경량반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들은 수도를 자기 고장으로 옮겨와야 국왕을 자기 편에 쟁취하여 저들이 권력을 잡는데 유리하다고 타산하였다.

이 시기 고려에서는 밖으로부터 녀진인들의 침입이 계속되고있었으며 큰 봉건세력들간의 권력싸움도 치렬해지고있었다.

리자겸의 반란에 혼이 나고 마음이 뒤숭숭해있던 국왕 인종은 이러한 말에 귀가 솔깃하여 차츰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림원역(평양시 룡성구역)에 대화궁이라는 새 궁전을 짓게하였고 앞으로 이곳에 수도를 옮길 생각까지 하게 되였다.

그러나 개경량반들은 수도를 서경으로 옮기는것을 한사코 반대하였다.

그런데 이때 공교롭게도 그처럼 명당자리라고 떠들던 대화궁에 벼락이 쳐서 그 건물이 불에 타버리게 되자 왕도 서경량반들의 말을 더는 믿지 않게 되였다.

수도를 옮기려던 저들의 뜻이 이루어질수 없게 되자 묘청일파는 1135년 1월 정변을 일으켰다. 그들은 서경과 부근의 여러 고을들에 와

있던 개경출신 관리들을 모조리 잡아가두고 서경출신 관리들을 그 자리에 올려앉히였다.

그리고 대위국이라는 나라를 선포한 다음 새로 군대를 조직하여 서경을 지키게 하고 그 일부를 오늘의 황해북도 서흥군 절령계선에 보내여 개경에서 오는 정부군을 막게 하였다.

그리하여 절령이북의 지역은 완전히 서경관리들의 세력밑에 놓이게 되였다.

정변이 일어나자 서경과 그 부근의 인민들이 여기에 많이 합세하였다. 그것은 서경인민들이 개경량반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건통치배들의 가혹한 착취와 큰 나라에 굽신거리는 그들의 행동에 반감을 품고있었기때문이였다.

봉건정부는 수많은 토벌군을 출동시켜 서경을 포위공격하였다.

그러자 서경군지휘부안에서는 조광을 비롯한 변절자들이 항복의 뜻으로 묘청의 목을 베여 토벌군에 보내였다.

서경의 군대와 인민들은 지휘층의 우유부단성과 변절행위에도 불구하고 토벌군을 반대하여 용감히 싸웠다.

서경인민들은 우세한 토벌군과 맞서 1년동안 싸웠다. 그러나 이듬해 2월 성은 함락되였다.

서경을 강점한 토벌군은 투쟁의 앞장에 섰던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거나 얼굴에 《서경역적》이라는 글자를 먹으로 새겨 먼 섬으로 귀양을 보냈다.

서경인민들의 투쟁은 비록 승리하지 못하였으나 그후 12세기 후반기 농민전쟁의 서막으로 되였다.

2. 정중부의 반란과 무신정권

고려의 력사에는 한때 칼찬 무관들이 정권을 잡았던 무신집권시기라는것이 있었다.

무신정권은 100여년간이나 계속되였다.

12세기 중엽 고려의 의종왕은 고려의 어느 왕들보다도 부화하고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다.

그는 수많은 인민들을 강제로 끌어내여 개경과 그밖의 여러곳에 화려한 궁전과 루각, 놀이터와 절간들을 지었다.

궁전과 루정들을 옥돌로 다듬어 계단을 쌓고 푸른 사기기와로 지붕을 이였으며 비단으로 벽을 도배하였다.

그리고 놀이터들에는 갖가지 꽃과 과일나무를 심고 기이한 돌들을 모아다가 아름다운 산을 만들었으며 먼 곳에서 물을 길어다가 인공폭포와 련못을 만들고 이른바 《신선세계》의 경치를 이루게 하였다. 의종왕은 이런 곳에 수백명의 신하들을 끌고다니면서 매일과 같이 술놀이, 배놀이 등 놀음판을 벌리였다.

이때 봉건통치층안에서는 의종왕과 그에 아첨하는 문신들에 대한 무신들의 불만이 높아가고있었다.

량반들가운데서도 문신들은 왕을 끼고 권세를 부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다.

그러나 무신들은 같은 량반이면서도 차별대우를 받았으며 높은 벼슬자리에도 오르지 못하였다.

그들은 군대를 인솔하여 왕의 행렬과 놀음판의 경비나 서고 심부름이나 하는 정도였다.

무신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높아갔다. 그것은 드디여 1170년 무신들의 반란으로 폭발하였다.

이해 8월 의종왕은 신하들을 데리고 경기도 파주에 있는 보현원이라는 절간으로 놀이를 가고있었다.

쉴참에 구경거리로 무신들을 맞붙여 5병수박희라는 경기를 진행하였는데 무관 리소응이 졌다. 그런데 이때 그보다 벼슬등급이 훨씬 낮은 한뢰라는자가 문신이랍시고 다짜고짜로 리소응의 뺨을 쳐서 섬돌아래로 떨어뜨리는 모욕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것을 본 왕과 문신들은 손벽을 치면서 리소응을 비웃어댔다.

이것은 쌓이고쌓였던 문신들에 대한 무관들의 불만을 크게 자극하였다.

그 자리에 있던 정중부, 리의방 등 무신들은 격분하여 칼을 뽑아들고 한뢰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왕의 만류에 의해 저지되였다. 그후 왕과 그 일행은 보현원에 이르러 술판을 벌리였다.

그러나 정중부 등 무신들의 울분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보현원을 포위하고 들이쳐 왕을 따라왔던 문신들을 모조리 쳐죽이고 그길로 개경으로 달려가 그전부터 밉게 보아오던 문신들을 닥치는대로 잡아죽이였다.

무신들은 의종왕을 거제도로 쫓아내고 새 왕을 들여앉힌 다음 모든 권력을 잡았다. 이 정변을 정중부의 반란 또는 무신정변이라고 한다.

고려의 무신정권은 철저히 무신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반인민적인 정권이였다.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어도 인민들에 대한 봉건적착취와 압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것은 무지막지한 통치로 바뀌여졌을 뿐이였다. 특히 무신들은 나라를 다스려본 경험도 없었기때문에 호령과 창검으로 정치를 대신하였다.

제2절.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 대농민전쟁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봉건시기에 노비를 비롯한 피압박대중은 극악한 신분적예속과 압박을 반대하여 줄기찬 투쟁을 벌려왔습니다.》

12세기 후반기～13세기초에 걸쳐 진행된 대농민전쟁은 이전과는 달리 농민군부대들이 군대와 같은 편제와 무장장비를 갖추고 진행한 큰 규모의 농민전쟁이였다.

1. 서북농민군의 투쟁

12세기 후반기 대농민전쟁의 첫 불길을 지펴올린것은 서북지방의 인민들이였다. 서북지방인민들의 투쟁은 처음에 서경량반들의 반란을 계기로 시작되였다.

1174년 9월 조위총을 비롯한 서경의 문신량반들은 무신들의 통치를 뒤집어엎고 다시 정권을 잡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본래부터 무신통치배들의 포악한 착취에 대하여 원한이 쌓이고쌓였던 서북지방인민들은 이 기회를 리용하여 투쟁에 일떠섰다.

반란은 평양을 비롯한 서북지방의 수만명의 농민들과 군인들을 망라한 대농민전쟁으로 번져지게 되였다.

농민군은 이해 10월 절령(서흥부근)계선에 미리 매복하고있다가 서경을 향해 기여들던 토벌군을 거의 몰살시킨 다음 개경부근에까지 쳐들어갔다.

농민군의 드세찬 공격에 바빠맞은 무신통치배들의 우두머리였던 리의방은 직접 군대를 끌고나와 농민군의 공격을 막아나섰다.

농민군은 아무런 방어시설도 없는 들판에서 우세한 적과 맞서 싸우는것이 불리하였으므로 서경까지 후퇴하여 대오를 다시 정비한 다음 투쟁을 계속 벌렸다.

농민군이 서경에 집결되자 놈들은 앞서 정변때 써먹은 수법대로 평양주변을 멀리 에돌아 평양성을 포위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의 기세에 눌리워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성을 에워싼채 버티고앉아 농민군이 식량이 떨어져 스스로 항복할것을 기다리는 전술에 매달렸다.

농민군은 적의 완전포위속에서도 여러차례에 걸쳐 성문을 열고 나가 놈들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싸움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성안에 식량이 떨어지고 지휘층안에서 동요가 일어남으로써 서경은 끝내 적들에게 함락되였다.

그후 500여명의 군대와 인민들은 광수의 지휘밑에 다시 대오를 뭇고 눈부신 투쟁을 벌렸다. 그들은 1177년 5월 서경을 점령한 다음 이미 토벌군에게 투항하였던 변절자들과 악질관리들을 모조리 족쳐버렸다.

그후 평양부근의 많은 농민들이 폭동군에 적극 참가하여 대오는 크게 늘어났다.

이에 질겁한 왕과 무신통치배들이 많은 군대를 내몰아 서북농민군을 여러차례 공격하였다.

농민군은 다섯달동안이나 서경을 굳건히 지키였다.

9월에 이르러 토벌군의 공세가 점점 강화되자 농민군은 활동의 중심지를 묘향산으로 옮기였다. 그것은 적의 대병력을 상대로 고립된 성에만 의거하여 싸우는것이 불리하였기때문이였다. 묘향산은 산세가 험하여 방어에 유리할뿐아니라 산줄기를 타고 서북지방 여러곳에로 투쟁을 확대해나갈수 있었다.

농민군은 부대를 군대식으로 전군, 중군, 후군의 3개 부대로 꾸리였는데 그때로서는 비교적 째인 대오였다. 3군의 지휘자는 광수, 김보, 계훈 등 자기의 성조차 가지지 못한 천민출신이거나 노비신분의 피압박인민들이였다.

부대를 다시 꾸린 농민군은 서북면(오늘의 평안남북도)의 산발을 타고 오늘의 녕변, 태천, 개천, 순천, 평양 등 여러 고을들을 넘나들면서 맹렬한 활동을 벌리였다.

농민군은 점차 력량이 자라남에 따라 멀리 황해도의 수안, 곡산땅에까지 진출함으로써 봉건통치배들을 벌벌 떨게 하였다.

바빠맞은 무신통치배들은 토벌군의 우두머리들을 갈아치우면서 토벌에 내몰았으나 그때마다 농민군에게 호되게 얻어맞고 쫓겨갔다.

싸움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농민군은 식량이 떨어지고 여러가지 난관에 부닥치게 되였다.

무신통치배들은 이것을 리용하여 농민군에게 무기를 놓고 투항하면 벼슬과 쌀을 주겠다고 얼리였고 악질적인 관리들을 단속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하였다.

이에 속은 일부 농민군지휘자들이 변절하였다.

농민군의 대오는 점차 약화되여 1178년 10월경에 흩어지고말았다.

서북지방농민군의 기본주력은 해산되였으나 거기에 참가하였던 적지 않은 농민들은 산간지대에서 그 이듬해 4월까지 투쟁을 계속하였다.

2. 망이농민폭동

서북농민군의 투쟁이 세차게 번져지고있던 1176년 1월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의 지휘밑에 수백명의 농민들이 투쟁에 궐기하였다.

명학소는 천민들이 사는 부락이였다.

이곳 주민들은 군이나 현에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심한 착취와 천대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곳 농민들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증오심이 매우 높았다.

망이농민군은 먼저 공주를 들이쳤다.

당시 공주는 중부조선에서 정치군사적중심지의 하나로서 매우 큰 고을이였다.

농민군은 공주를 점령한 다음 봉건관리들과 량반들을 처단하면서 투쟁성과를 확대해나갔다. 투쟁의 불길은 삽시에 온 공주땅을 휩쓸었으

며 농민군은 큰 부대로 자라났다.

급해맞은 왕과 무신집권자들은 3 000여명의 토벌군을 내몰아 농민군을 진압하려고 발악하였으나 공주농민군은 놈들을 단숨에 족쳐버리였다.

궁지에 빠진 무신통치배들은 농민군을 얼려 그들의 반항기세를 무마시키려고 교활한 전술을 쓰기 시작하였다.

6월에 놈들은 명학소를 충순현으로 높여 현과 같은 대우를 하며 조세와 공물을 덜어주겠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토벌군의 꾀임수에 속아넘어간 망이를 비롯한 농민군지휘자들은 개경으로 찾아가 봉건통치배들과 화의를 맺었다. 이것은 농민군의 큰 잘못이였다.

공주농민군을 속여넘겨 시간을 얻은 무신통치배들은 은밀히 군대를 동원하여 서남지방에서 활동하고있던 다른 농민군들을 하나하나 격파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다른 지방의 농민군을 진압한 봉건통치배들은 저들의 본성대로 이제는 공주농민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원쑤들의 흉계에 속았다는것을 깨닫게 된 공주농민군은 1177년 2월 또다시 들고일어났다.

농민군은 먼저 가야(충청남도 례산)의 절간을 들이치고 농민군의 움직임을 개경통치배들에게 고해바치던 중들을 모조리 요정냈다.

공주농민군은 계속하여 황려현(경기도 려주)과 진주(충청북도 진천)를 점령하였다. 이해 3월에는 홍경원이라는 절간을 습격하여 불사르고 악질적인 중들을 처단하였다.

공주농민군은 계속하여 이해 4월까지 오늘의 충청남북도의 거의 모든 지역에 해당하는 56개의 군과 현,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였다.

이에 질겁한 봉건통치배들은 더 많은 토벌군을 조직하여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내몰았다.

통치배들이 많은 무력을 총동원하여 발악적인 공격으로 나오기 시작하자 농민군대오안에서는 동요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농민군은 조성된 정세에 맞게 투쟁을 더 넓혀나갈 대신에 난관앞에 굴복하여

국왕에게 또다시 화의를 맺을것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봉건통치배들은 수많은 병력을 동원하여 농민군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를 감행하였다.

1177년 7월 망이는 체포되고 농민군의 대오가 흩어짐으로써 결국 망이농민군의 투쟁은 실패하게 되였다.

망이농민폭동은 착취계급에 대해서는 절대로 환상을 가져서는 안된다는것을 투쟁의 교훈으로 보여주었다.

3. 경상도농민군의 투쟁

서북농민군과 망이농민군의 투쟁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 지방에서는 비록 규모는 크지 않아도 농민들의 폭동이 끊임없이 벌어졌다.

이러한 투쟁들은 봉건통치배들과의 보다 큰 싸움을 준비해나가는 과정이였다.

마침내 119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상도지방에서 또다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이 지방에서는 농민군의 큰 부대들이 활동하였는데 그가운데서 대표적인것은 경상북도 운문산(청도)을 중심으로 활동한 김사미의 농민군부대와 경상남도 초전(울산)에서 투쟁을 벌린 효심의 부대들이였다.

이 두 부대는 1193년부터 맹렬히 활동하면서 경주부근의 여러 고을을 들이치고 지방관리들과 량반지주들을 처단하였다.

개경의 무신통치배들은 당황하여 큰 규모의 토벌군을 급히 출동시켜 농민군을 치게 하였다.

그러나 농민군은 토벌군 우두머리들사이의 권력다툼과 금은보화에 눈이 어두운 리지순의 약점을 리용하여 중요한 정보를 알아냄으로써 싸움마다 매번 승리하였다.

당황한 무신통치배들은 새로 토벌군을 조직하고 그 지휘관을 보다 악착한자로 갈아치운 다음 농민군을 진압하는데 내몰았다. 놈들은 경상도 동쪽해안과 운문산으로 기여들었다.

그리하여 1194년 4월 농민군부대와 토벌군과의 큰 싸움이 밀성(밀

양) 저전촌부근에서 벌어졌다.

1만여명이상의 농민군은 수만명의 적들과 결사적으로 싸웠다.

이 싸움에서 농민군은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지만 봉건통치배들에게도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그후 무신통치배들의 회유기만책동과 군사적공세가 계속됨에 따라 농민군대오는 점차 흩어지게 되였다.

4. 실패한 만적의 폭동계획

12세기말 고려의 수도였던 개경에서 제일 큰 산인 송악산에는 많은 노비들이 나무하러 가군 하였다. 그중에는 당시 무신정권의 우두머리 최충헌의 노비였던 만적도 있었다.

만적은 나무하러 다니는 과정에 처음 6명의 동료들을 사귀게 되였다.

그는 나무하러 간 기회를 리용하여 거기에 모여온 개경의 노비들에게 《높은 벼슬을 하는자들은 종자가 따로 있는것이 아니다. 그런데 우리는 뼈빠지게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상전들의 채찍밑에서 고생만 하지 않는가. 우리도 들고일어나 상전들을 처단하고 저주로운 노비제도를 없애버리자.》고 하면서 투쟁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노비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다.

그들은 자기들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짜고 폭동준비까지 갖추었다.

폭동자들은 먼저 흥국사(개성에 있던 절간)에 모였다가 왕궁앞으로 달려가면서 북을 치고 함성을 올리면 이것을 신호로 일시에 들고일어나 관료배들과 상전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그 벼슬자리들을 차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대오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암호표식으로서 《고무래 정》(丁)자를 쓴 누런 종이들을 나누어가졌다.

이 폭동계획에는 수천명의 노비들이 망라되여있었다.

만적 등은 계획된 날에 폭동자들을 흥국사에 집결시켰다. 그러나 예견된 인원들이 다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폭동기일을 뒤로 미루고 집결장

소도 바꾸었다.

이때 대오안에 생긴 변절자 순정은 폭동계획을 무신통치배들에게 죄다 밀고하였다.

무신의 우두머리 최충헌은 눈이 뒤집혀졌다. 그것은 폭동을 계획한 주동분자가 다름아닌 자기 집의 종인 만적이고 그것도 수도인 개경에서 벌어질 일이기때문이였다.

무신집권자들은 군대를 동원하여 만적을 비롯한 100여명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몸에 연추를 매달아 례성강에 빠뜨려죽이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개경노비들의 폭동계획은 비록 실패하였으나 이 투쟁이 노비들자신이 독자적으로 그것도 봉건통치배들의 소굴인 개경한복판에서 벌어진것으로 하여 일정한 력사적의의가 있다.

또한 이 투쟁은 노비신분을 없애겠다는것을 목표로 내세운 투쟁이였다는 점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개경노비들의 투쟁이 있은 후에도 1200년에 경상도 진주와 밀성에서 노비들의 투쟁이 일어났다.

제3절. 고려-봉건몽골전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은 예로부터 침략자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조국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싸움에 한사람같이 일어나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쳤으며 조국을 영웅적으로 방위하면서 반만년의 슬기로운 력사를 창조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은 13세기에는 봉건몽골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였다.

봉건몽골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되였다. 1단계는 1231년 봉건몽골의 제1차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이였고 2단계는 1232년부터 진행된 반몽골투쟁, 3단계는 삼별초군의 투쟁이였다.

1. 봉건몽골의 고려침략

중세기 봉건몽골침략군이라고 하면 잔인성과 포악성이 강한것으로 력사에 널리 알려져있다.

몽골족은 원래 바이깔호로부터 거비(고비)사막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퍼져살고있던 유목종족이였다. 그들은 12세기말까지도 여러개의 부족으로 나뉘여 살면서 뒤떨어진 상태에 놓여있었다. 테무진(칭기스한)이라는 귀족이 여러 종족의 통합을 이룩하고 1206년에 최고의 통치자로 되면서 비로소 봉건국가의 면모를 갖추게 되였다.

뒤늦게야 나라를 세운데다가 경제토대가 보잘것 없던 몽골족은 빠른 시일안에 재부를 늘구고 더 많은 령토를 차지하려고 대대적인 대외침략의 길에 나섰다.

몽골족은 유목민으로서 말타기에 능하였으며 기동력이 빠른 20만의 기병을 가지고있었다.

칭기스한은 기마병들을 거느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넓은 지역을 정복해나갔다.

포악한 봉건몽골침략자들의 말발굽아래 한때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노예살이의 운명을 강요당하였으며 거리와 마을들이 재더미로 변하고 귀중한 문화유물들이 파괴되였다.

고려와 변경을 접하고있던 만저우(만주)지방에도 봉건몽골의 침략세력이 뻗치면서 봉건몽골과 금나라, 거란, 동진국 등 여러 세력이 어지러운 싸움판을 벌리고있었다.

이것은 고려에도 영향을 미치였다.

당시 만저우지방의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다시 자라난 거란은 1216년-1219년 기간에 세차례에 걸쳐 고려에 침입하였다.

당시 고려인민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거란침략군을 반대하여 줄기차게 싸우고있었다.

이러한 때인 1218년 12월 봉건몽골침략자들은 거란인들을 친다는 구실밑에 3만명의 병력으로 고려에 침입해왔다.

적들의 침략목적은 이 기회에 저들의 힘을 시위하고 고려의 내부형

편을 탐지하여 앞으로의 본격적인 침략을 준비하자는것이였다.

고려인민들과 군대는 봉건몽골침략군이 거란을 친다고 들어온 조건에서 봉건몽골군을 리용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봉건몽골침략군과 협동한 고려군대는 강동성에 있던 거란군을 쉽게 요정낼수 있었다.

고려군의 강한 힘을 직접 보게 된 봉건몽골침략자들은 고려를 쉽사리 정복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일단 물러갔다.

그후 적들은 침략야망을 버리지 않고 고려에 생트집을 걸기도 하고 터무니없이 여러가지 물건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우리 나라에는 침략의 위험이 무겁게 드리우고있었다.

무신독재자 최충헌일당은 나라의 방비를 강화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기 사병을 꾸리는데만 급급하였다.

이리하여 우리 인민은 앞으로 가장 어려운 조건에서 가장 횡포한 봉건몽골침략자와 맞서 피어린 싸움을 벌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2. 구주성싸움

1231년 8월 살례탑이 지휘하는 수만명의 봉건몽골침략군이 고려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였다.

봉건몽골침략군은 의주를 거쳐 철주(철산)에 기여든 다음 두개 부대로 나뉘여 계속 침입하였다. 한 부대는 서북지방의 중요한 요새인 구주(구성)로, 다른 한 부대는 수도 개경을 향하여 남쪽으로 기여들었다.

나라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시각에 고려인민들은 한사람같이 투쟁에 떨쳐나섰다.

가렬처절한 싸움은 구주성에서 벌어졌다.

성에는 박서가 지휘하는 1 000여명의 고려군대와 인민이 있었을뿐이였다.

그들은 적들이 성을 겹겹이 에워싼 속에서도 모두가 한덩어리가 되여 용감하게 싸웠다.

방어자들은 적들이 포차라는 무기로 큰 돌을 날려보내여 성벽을 무너뜨리면 재빨리 성벽을 쌓았으며 성둘레에 기름을 뿌린 나무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공격해오면 미리 준비해둔 진흙물을 퍼부어

불을 꺼버리군 하였다.

적들은 소가죽을 씌운 수레속에 군사들을 숨기고 성밑으로 다가와 굴을 뚫고 성안에 기여들려고 시도하였다.

이것을 안 고려의 군대와 인민들은 맞받아 굴을 뚫고 펄펄 끓는 쇠물을 적들에게 퍼부었다.

구주성방어자들은 적들이 운제라는 높은 사다리를 리용하여 성벽으로 기여오르면 큰 날을 가진 대우포로 적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혔다.

용감한 구주성의 방어자들은 때로는 대담하게 성문을 열고나가 습격전을 벌리기도 하였다.

성의 남쪽방어를 맡아 지휘하던 김경손은 12명의 용사를 거느리고 달려드는 적들을 맞받아나갔다. 그들은 먼저 적장을 쏘아눕힌 다음 적진속으로 육박해들어갔다. 이때 적들이 쏜 화살이 김경손의 팔에 박혀 피가 흘렀는데 얼마나 싸움에 열중하였는지 전투가 끝난 다음에야 화살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구주성인민들은 침략자들이 아무리 악을 쓰며 달려들어도 적들에게 무리죽음을 안기면서 성을 굳건히 지켜냈다.

그러기에 적들은 구주성사람들이 대군을 막아내는것은 하늘이 도와주기때문이지 도저히 사람의 힘은 아니라고까지 아우성을 쳤다.

구주성인민들은 그해 9월부터 이듬해 1월 적들이 쫓겨갈 때까지 네차례에 걸친 집요한 공격을 용감히 물리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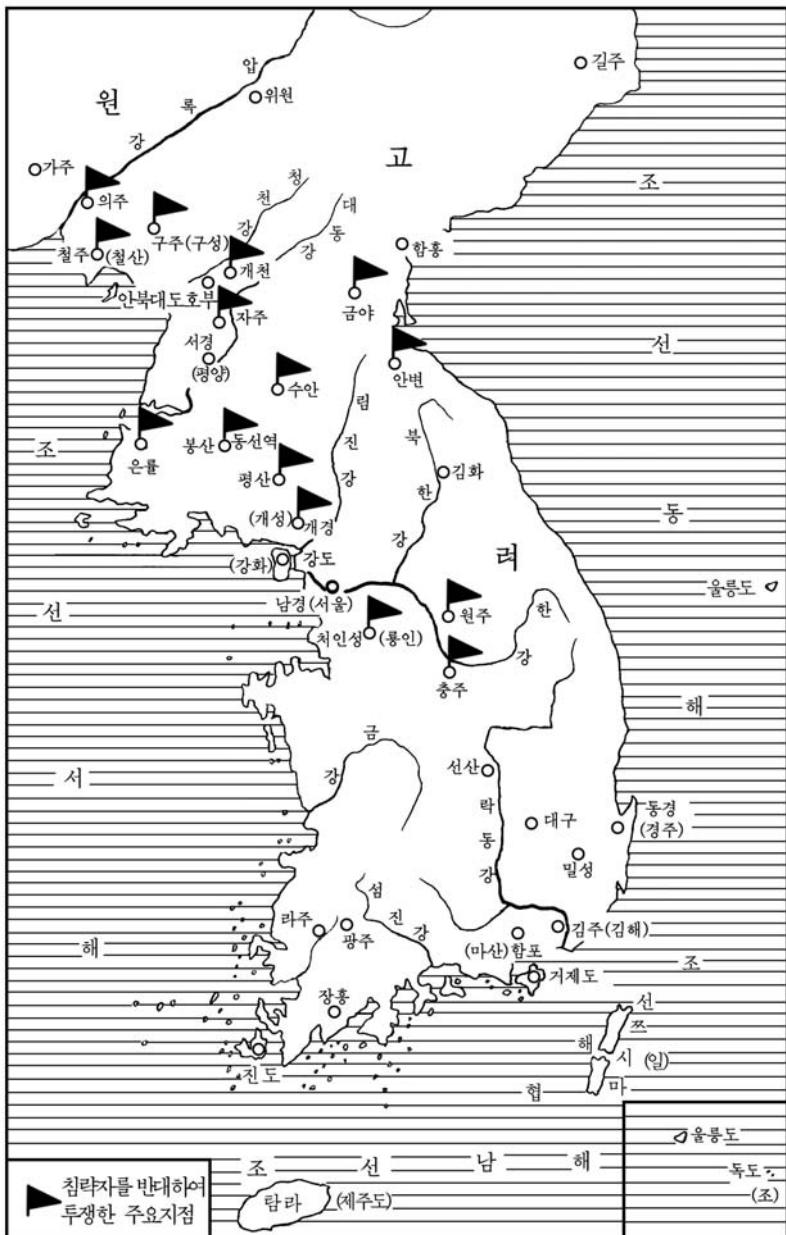
구주성에서 싸움이 한창일 때 살례탑이 거느린 침략군의 다른 한 부대는 미친듯이 개경을 향해 달려들고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권을 잡고있던 최가는 방어군을 증강하는데 자기의 사병을 한명도 내놓지 않았다.

봉건몽골침략군을 반대하는 싸움에 적극 떨쳐나선것은 오직 인민대중뿐이였다. 특히 그때까지 봉건통치배들을 반대하여 싸우고있던 각지의 농민폭동군들이 공격의 화살을 침략자들에게 돌렸다.

마산농민폭동군 5 000여명 그리고 경기도 광주의 관악산농민군과 충주에서 싸우던 노비들의 폭동군도 방어군에 참가하였다.

인민들은 자주(자산), 서경, 충주에서 봉건몽골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침략자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된매를 얻어맞게 되자 하는수없이 1232년 1월 고려정부와 화의를 맺고 물러가고말았다.

고려―봉건몽골전쟁도

3. 처인성과 충주성싸움

1232년 봉건몽골침략자들은 또다시 고려에 침입하였다. 구실은 고려정부가 강화도천도를 계기로 다로가치들을 처단한것이였다.

강화도천도란 강화도로 수도를 옮겼다는 뜻이다.

화의를 맺고 쫓겨갔던 봉건몽골침략자들은 다로가치라는자들을 고려에 들여보내였다.

다로가치란 봉건몽골침략자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을 위해서 파견한 감독관을 말한다.

무신독재자 최가의 사랑방에서는 통치배들이 해결대책을 놓고 옥신각신 하던 끝에 우선 수도를 개경으로부터 강화도로 옮길것을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고려통치배들은 1232년 6월에 봉건몽골의 다로가치들을 죽여버리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겼던것이다.

이때 고려통치배들이 륙지를 떠나 강화도로 수도를 옮겨간것은 바다싸움에 익숙하지 못한 봉건몽골침략군의 약점을 타산한것이였다.

이때부터 적들은 근 30년동안 끊임없이 고려에 침입하여왔다.

고려인민들은 국가적인 방어대책이 한심한 조건에서도 각지의 산성들에 의거하여 침략자들과 용감히 싸웠다.

그가운데서도 처인성의 천민들과 충주성노비들의 투쟁이 가장 견결하였다.

1232년 12월 살레탑을 우두머리로 하는 봉건몽골침략군은 처인성(경기도 룡인)으로 달려들었다.

그때 성안에는 천민들로 이루어진 얼마 안되는 병력이 있었을뿐이였다.

적들은 처인성을 단숨에 점령하려고 발악적으로 덤벼들었다. 그러나 성안의 군인들과 인민들은 수많은 적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이때 활의 명수였던 김윤후는 한대의 화살로 적의 우두머리 살레탑을 통쾌하게 쏴죽이였다. 처인성의 방어자들은 우두머리를 잃고 갈팡질팡하는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혔다.

일부 살아남은 적들은 얼혼이 나가 달아나버렸다.

그후에도 적들은 침략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1253년 봄에 또다시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다.

그해 10월에는 충주로 공격해왔다.

충주성인민들은 김윤후의 지휘밑에 70여일동안이나 성을 지켜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싸움이 오래 계속됨에 따라 식량은 떨어지고 싸움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이때 김윤후는 싸우는 인민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기 위하여 성안에 보관되여있던 노비문서를 불살라버리고 모두가 최후결전에 나설것을 호소하였다. 이것은 노비들을 비롯한 성안의 인민들을 크게 고무하였다. 노비들을 주력으로 하여 조직된 돌격부대는 성문을 열고 나가 적들을 무리로 쓸어눕히고 포위망을 짓부셔버렸다.

충주성인민들의 결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된타격을 받은 적들은 더 남쪽으로 기여들지 못하였다.

봉건몽골침략자들은 수십년동안 고려에 악착스럽게 덤벼들었으나 그것이 도저히 승산이 없다는것을 깨닫게 되였다. 그리하여 이번에도 역시 고려정부와 화의를 맺으려고 하였다.

이러한 때 강화도의 통치배들속에서는 권력싸움이 계속되면서 최가무신정권이 거꾸러졌다.

문신들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봉건몽골과의 관계를 빨리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259년에 봉건몽골과의 담판이 진행되고 두 나라사이에 화의가 맺어졌다. 봉건몽골은 고려의 주권과 령토를 그대로 인정하고 앞으로 평화적인 국가관계를 가질데 대하여 동의하였다.

이러한 일은 일찌기 봉건몽골의 침략력사에서 볼수 없는 일이였다. 당시 포악한 봉건몽골침략자들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그 나라들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야 침략전쟁을 끝마치군 하였다.

그러나 오직 고려에 대해서만은 그렇게 할수 없었다. 이것은 고려의 애국적인민들이 나라를 지켜내기 위하여 얼마나 완강하게 싸웠는가를 뚜렷이 보여주었다.

4. 삼별초군의 항전

1270년 5월 고려봉건통치배들은 수도를 다시 개경으로 옮겨갔다. 력사에서 이것을 구도환경(옛 도읍지로 수도를 옮겼다는 뜻)이라고 한다.

이와 동시에 강화도에 있는 삼별초군을 해산하라는 국왕의 명령이 떨어졌다.

원래 별초란 특별히 선발한 부대를 말하며 삼별초라고 하면 좌별초, 우별초, 신의군 등 세개의 별초를 통털어 부른 말이다. 당시 이들은 강화도를 지키던 군대의 주력을 이루고있었다.

삼별초는 봉건국가의 군대이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속해있던 병사들은 모두 피압박인민들이기때문에 정의감이 강하고 침략자들에 대한 적개심도 높았다.

봉건몽골과 화의를 맺은 다음 수도를 다시 옮기면서 고려의 통치배들은 삼별초군의 이러한 기세를 꺼려하여 해산시키려고 하였던것이다.

삼별초군은 이에 격분하여 1270년 6월 1일 폭동을 일으켰다. 배중손의 지휘밑에 삼별초군은 무기고를 열고 인민들을 무장시킨 다음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전군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량반들을 처단하고 강화도를 완전히 차지하였다. 그러나 강화도는 봉건통치배들이 틀고앉은 개경의 코앞에 있고 또 항전기지로서는 적당치 않았다.

삼별초군은 투쟁을 장기적으로 줄기차게 벌리기 위하여 항전의 중심지를 진도로 옮기기로 하였다.

진도는 개경과 멀리 떨어져있었으며 륙지와의 사이에 물살이 급한 해협들이 있어 방어에도 유리하였다. 또한 이 섬은 조선서해와 남해가 통하는 길목이고 륙지와 가까와서 바다의 여러 섬들을 틀어쥐고 륙지의 적을 공격하거나 그곳 인민들과 련계를 강화하는데서 유리한 곳이였다.

1 000여척의 배에 나누어타고 진도로 향하는 항전군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삼별초군은 진도를 항전기지로 꾸린 다음 9월초부터 투쟁을 힘차게 벌렸다. 그들은 장흥, 라주, 전주 등 여러 고을들을 련이어 들이쳐 전라도일대를 뒤흔들어놓았으며 제주도를 차지하고 그곳을 제2의 기지로 꾸리였다.

이에 당황한 봉건정부는 토벌군을 여러번 내몰았으나 그때마다 참패만 당하였다.

삼별초군은 투쟁을 확대하여 조선남해의 30여개 섬을 차지하고 그 일대에서 일본침략을 위하여 배무이를 하던 봉건몽골침략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었다.

한편 그들은 여러 지방에 격문을 띄워 륙지인민들을 애국적항전에로 불러일으켰다.

삼별초군의 항전에 호응하여 밀성(밀양)에서는 방보, 계년 등의 지휘밑에 농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개경에서는 노비인 숭겸과 공덕 등이 인민들을 묶어세워 봉건몽골의 다로가치와 고려의 반역자들을 쳐죽인 다음 진도항전군과 합류할것을 계획하고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였다.

날로 높아가는 삼별초군의 투쟁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인민들의 투쟁에 질겁한 봉건몽골침략자들과 개경의 봉건통치배들은 1271년 5월 100여척의 함선으로 불의에 진도를 공격하여왔다.

항전군은 악착스럽게 달려드는 적들을 맞받아 용감히 싸웠다. 그러나 항전군안에서 변절자가 생겨 비밀을 적들에게 넘겨줌으로써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되였다. 지휘자 배중손도 전사하였다.

그러나 항전군은 김통정의 지휘밑에 제주도로 항전기지를 옮기고 투쟁을 계속하였다.

삼별초군은 제주도의 방어시설을 튼튼히 꾸리고 대오를 다시 정비한 다음 조선남해의 추자도, 흑산도, 거제도 등을 전초기지로 하여 1272년 봄부터 조선남해안 일대에서 맹렬한 해상습격전을 벌렸다.

항전군은 전라도 여러 고을을 련이어 들이쳐 적들을 요정냈으며 때로는 개경에서 멀지 않은 경기도의 서해안에까지 진출함으로써 통치배들을 벌벌 떨게 하였다.

항전군은 이해 11월과 이듬해 1월에 일본침략준비에 미쳐날뛰고있던 합포(마산)의 봉건몽골침략자들을 또다시 들이쳐 싸움배 52척을 불살라버렸다.

련이어 된매를 얻어맞은 적들은 1273년에 160여척의 싸움배에 탄 1만여명의 대병력으로 제주도를 공격해왔다. 적들은 섬에 기여올라 불화살을 쏘아 성을 온통 불바다로 만들면서 물밀듯이 쓸어들었다.

항전군은 수적으로 우세한 적들을 맞받아 마지막까지 용감히 싸우다가 성과 운명을 같이하였다.

3년간 계속된 삼별초군의 항전은 봉건몽골침략자들과 봉건통치배들에게 큰 타격을 줌으로써 우리 인민의 슬기로운 애국정신을 다시한번 시위하였다.

제4절. 국토완정을 위한 고려인민들의 투쟁

1. 원나라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래침략자들은 력사적으로 끊임없이 우리 나라를 침공하여왔으나 한번도 우리 인민의 애국적충성심과 용감성을 꺾지 못하였으며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수 없었습니다.》

14세기 후반기 고려인민들은 매우 간고한 조건에서도 원(몽골족의 나라)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14세기 중엽 한때 침략전쟁을 통하여 아시아와 유럽의 넓은 령토를 차지하였던 원나라가 급속히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고려정부는 기울어져가는 원나라와 련계를 가지는것보다 인민들의 반원기세에 편승하는것이 저들의 통치를 유지강화하는데 유리하다고 타산하였다.

이리하여 고려정부는 친원파관료들을 처단하고 원침략세력을 몰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게 되였다.

고려정부는 동시에 내정간섭의 도구이며 인민들의 증오의 대상이였던 정동행성을 철페하였다. 정동행성이란 봉건몽골이 일본침략을 위하여 1280년에 고려에 설치한 관청이였다. 그후 봉건몽골이 일본침략을 포기한 다음에도 정동행성은 그냥 존속되여있으면서 고려내정에 간섭해나섰던 기관이였다.

고려정부는 동북면과 서북면에도 군대를 출동시켜 압록강이북과 쌍성지방(동북지방)을 공격하는 군사적조치들을 취하였다.

1356년 6월 고려정부는 군대를 압록강너머로 출동시켜 서북변경지대를 위협하던 3개의 원나라군사거점을 들이쳐서 침략자들을 멀리 쫓아버리였다. 같은 해 7월에는 동북면 병마사 류인우가 지휘하는 고려군이 쌍성지방으로 진격하였으며 이곳 인민들은 고려군의 진격에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고려군은 애국적인민들과 합세하고 이곳 고려인 봉건세력들의 지원을 받아 쌍성총관부를 없애버리고 이 일대에서 원나라침략자들을 몰

아냄으로써 오늘의 함경도의 대부분지방을 고려의 령토에 들어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고려인민들은 침략자들이 마지막으로 틀고앉아있던 제주도를 되찾는 투쟁을 벌렸다.

최영의 지휘하에 2만 5 600명의 고려군대와 300여척으로 편성된 원정군은 1374년 8월 제주도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다.

원정군은 제주도에 도착하여 먼저 4면으로 공격태세를 갖추면서 포고문을 발표하여 인민들과 제주도의 고려인 관리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적들에게 가담한자라도 항복하면 용서를 받을수 있다는것을 선포하였다.

원나라침략자들은 3 000명의 기병을 이끌고 원정군에 대항해나섰다.

고려군은 좌우로 맹렬히 공격하면서 30리나 적들을 추격하여 소멸하였다.

그후 고려군은 제주성에 의거하여 발악하는 적들을 련이어 격파하고 대승리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고려군은 100여년동안이나 섬에 둥지를 틀고있던 원나라침략자들을 완전히 소탕하고 섬안의 말 전부와 수많은 무기와 무장장비들을 로획하였다.

제주도원정은 원나라세력을 우리 강토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한 투쟁의 마지막시기를 장식하였다.

2. 랴오둥(료동)원정

고려인민들은 조국땅에서 원침략세력을 몰아낸 다음 계속하여 1369년말～1370년초에 압록강이북에 둥지를 틀고있는 원침략자들의 나머지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였다.

당시 랴오둥지방에는 원나라의 여러 봉건잔여세력들과 함께 고려의 반역자들이 집결되여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려에서 쫓겨난 둥닝(동녕)부가 설치되여있었다.

이곳은 원나라가 뒤흔들리는 저들의 중국에 대한 지배를 계속 유지하며 고려를 침공하기 위한 거점이였다.

고려인민들은 둥닝부를 들이쳐서 원침략자들의 무력침공기도를 미

리 앞질러 파탄시키며 나아가서 고구려와 발해의 옛 강토를 되찾을것을 목적하고 원정을 계획하였다.

랴오둥원정은 3차에 걸쳐 진행되였다.

제1차원정은 1369년 11월부터 단행되였다.

양백연이 지휘하는 서북면의 군사들은 압록강을 건너 랴오양(료양)성(둥닝<동녕>성)을 들이쳤으며 1만 5 000명으로 구성된 동북면의 군사들은 올라산성을 함락시키고 넓은 지역을 장악하였다.

이때 이 지역에 살고있던 1만여호의 인민들은 고려군의 진격을 매우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다.

원정을 승리적으로 장식한 고려군은 1370년 2월 하순에 개선하였다.

1370년 11월 고려군은 제2차원정을 진행하였다.

1차원정에서 공격을 받고 달아났던 고려의 반역자들은 원정군이 철수한 다음 다시 랴오둥성을 타고앉아서 군대를 긁어모아 고려에 침입하려고 하였다.

이런 형편에서 서북면 상원수 지룡수가 지휘하는 수만명의 고려군은 압록강을 건너 랴오둥성으로 진격하였다.

원정군은 먼저 선발된 3 000여명의 기병으로 성을 공격하였으며 뒤이어 주력부대는 비발치는 적들의 화살속을 용감하게 뚫고들어갔다.

랴오둥성을 점령한 고려군은 군사시설을 파괴하고 우두머리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포로하였다.

원정군은 자기의 위력을 랴오둥일대에 시위하고 그곳이 옛날부터 우리의 강토였다는것을 선포한 다음 무사히 돌아왔다.

1371년 9월 고려군은 압록강너머에 대한 3차원정을 진행하였다.

안우경이 지휘하는 고려군은 압록강중류를 건너 10월 올라산성을 공격하였다. 그들은 거기에 둥지를 틀고있던 원침략세력의 잔당들을 모조리 소탕하였으며 그 우두머리들을 포로해가지고 돌아왔다.

랴오둥원정은 원나라침략자들의 나머지 세력들을 격파하고 다시는 고려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고구려와 발해의 옛 강토를 되찾는 투쟁에서 큰 의의를 가지였다.

3. 왜구의 침입과 그 격퇴

1) 진포바다싸움과 운봉싸움에서의 승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고려의 수군함대는 마침내 1380년에 진포앞바다에서 왜구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들씌웠습니다.》

고려－봉건몽골전쟁후 고려인민은 또다시 남쪽바다로부터 달려드는 왜구와 맞서 근 반세기동안 힘겨운 싸움을 하게 되였다.

왜구란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여러 해안들에 싸다니면서 로략질을 일삼던 일본해적의 무리들을 말한다.

이 침입이 더욱 잦아진것은 1350년이후부터였다.

놈들은 고려가 북쪽으로부터 달려드는 여러 침략세력과 싸우고있는 틈을 리용하여 수백, 수천 때로는 수만명씩 떼를 지어 달려들군 하였다.

적들의 야수적만행으로 마을들이 불타고 재물이 략탈당하였으며 많은 인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므로 바다가에 살고있던 많은 사람들이 왜구의 만행을 피해 내륙지대로 옮겨가 조선남해안의 기름진 벌방지대는 차츰 인적이 드문 고장으로 되여버렸다.

게다가 조선서해안의 배길이 막혀 군량미를 비롯한 물자들을 해상으로 실어나를수 없게 되였다.

때문에 왜구의 침입을 물리치는것은 매우 긴급한 문제로 나섰다.

그때 고려에서는 최무선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위력있는 화약무기들이 새롭게 발명제작되여 싸움배들에 장비되였다. 이리하여 고려에서는 왜구와의 싸움에서 적극적인 공세로 넘어갈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졌다.

1380년 8월 수만명의 왜구가 500여척의 배에 나누어타고 전라도 진포에 침입하였다.

해적의 무리들은 포구에 닻을 내리고 륙지에 기여올라 략탈을 감행하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계룡산(충청남도 공주와 론산사이)에 둥지를 틀고앉아 여러

고을들을 싸다니면서 갖은 만행을 다하는 한편 강탈한 곡식을 배로 실어날랐다.

이때 적들이 얼마나 덤벼쳤던지 길가에 흘린 낟알만 하여도 발목이 묻힐 정도로 많았다고 한다.

고려함대에 위력한 화약무기가 장치된것을 알리 없었던 왜구들은 고려의 배가 수적으로 적은것을 얕보고 덤벼들었다. 이때 고려함대가 갑자기 적들을 향하여 화포(화약을 쓰는 대포)를 쏘았다. 500여척의 적선은 흩어질 사이도 없이 몽땅 불길에 휩싸이고 짙은 연기는 진포의 하늘을 뒤덮었다. 해적들은 갈팡질팡하다가 연방 날아오는 포탄에 맞아 너부러지고 더러는 불에 타죽거나 물에 빠져죽었다.

이것이 고려말엽 왜구와의 싸움에서 첫 승리를 이룩하고 력사에 소문난 1380년 8월의 진포해전이였다.

진포해전은 세계력사상 화약무기를 가지고 바다우에서 싸움을 벌린 첫 해전이였다.

진포에서의 승리에 련이어 고려군은 운봉에서도 또다시 큰 승리를 이룩하였다.

이때 륙지에 기여올라 략탈을 감행하던 수만명의 왜구들은 저들의 배가 진포에서 몽땅 녹아나는것을 보자 운봉(남원)의 산골짜기에 몰려들어 살구멍을 찾아보려고 발악하였다.

고려군대는 정면으로 공격하는 한편 고지뒤쪽 벼랑으로 올라 적의 우두머리를 비롯한 수많은 적들을 쓸어눕히고 마지막 섬멸전을 벌릴 차비를 갖추었다.

이제는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것을 알게 된 적들은 겁에 질려 목놓아 통곡을 하였는데 그 소리가 마치 몇만마리의 소가 단꺼번에 울어대는것과 같았다고 한다.

고려군은 돌격전을 벌려 적들을 몽땅 소멸하였다. 이때 왜구들의 더러운 시체가 락동강의 지류인 남강을 메워 강물이 여러날동안 붉어져 있었다고 한다.

진포와 운봉에서의 승리는 왜구와의 싸움에서 새로운 전환점으로 되였다.

2) 1389년 쯔시마원정

1383년 5월 박두양(경상남도 앞바다)에서는 또다시 큰 규모의 바다싸움이 벌어졌다.

진포와 운봉에서 참패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구는 또다시 120척으로 무어진 대함대로 경상도 해안지대에 쳐들어왔다.

통보를 받은 고려의 수군은 47척의 함선에 나누어타고 목포를 떠나 적들을 맞받아나갔다.

쏜살같이 박두양에 이른 고려함대는 적함을 향해 돌진하면서 맹렬한 화포사격을 퍼부어 17척의 배를 불살라버렸다. 이때 왜구 수천명의 시체가 박두양의 온 바다를 뒤덮었다.

이 바다싸움은 고려수군의 힘을 크게 시위한 또 하나의 큰 전투였다.

그후에 왜구는 훨씬 기가 꺾이기는 하였으나 침입행위를 그만두지는 않았다.

고려에서는 왜구의 침입을 끝장내기 위하여 적들의 중요한 소굴인 쯔시마를 공격하기로 하였다.

당시 쯔시마의 령주는 왜구의 우두머리로서 여러곳에 나드는 해적선들을 조종하고 해적들이 략탈해온 물건의 큰 몫을 얻어먹고있었다. 쯔시마에는 해적선들이 나드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시설들도 갖추어져있었다.

1389년 2월에 박위가 지휘하는 100척의 고려함대는 쯔시마를 공격하였다.

고려의 수군은 쯔시마에 있는 적들의 배 300척을 불살라버리고 바다가의 시설물들을 파괴소각해버렸으며 잡혀갔던 고려사람들을 구원해가지고 돌아왔다.

쯔시마공격은 왜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우리 인민이 적극적인 공세에로 넘어가면서 안긴 첫 반격이였다. 그후부터 왜구들은 함부로 우리 나라에 덤벼들지 못하였다.

제3장. 고려의 종말과 문화

제1절. 고려의 종말

1. 위화도회군

고려봉건정부가 1369년부터 1371년까지 세차례에 걸쳐 원정을 진행한 랴오둥지방은 옛날 고구려와 발해의 령토였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고구려사람들의 후손이 많이 살고있었다. 그곳 주민들은 고려군대의 진격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였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려에 넘어오기까지 하였다.

고려의 랴오둥진출은 봉건몽골의 침략기도를 짓부셔버리고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우리 인민들의 오랜 념원을 실천에 옮긴 의의있는 사변으로 되였다.

그러나 고려는 왜구의 침습과 함께 봉건통치배들속에서 벌어진 권력다툼으로 하여 랴오둥원정의 성과를 공고히 하지 못하였다.

이 시기 함경도지방의 지주출신이며 토호인 리성계가 점차 자기의 세력을 뻗치면서 높은 벼슬자리에 기여올랐다.

이러한 때에 오늘의 중국땅에서는 원나라세력이 밀려나고 명나라가 세워졌다. 명나라는 고려의 세력이 랴오둥지방에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려를 위협하였다.

고려에서는 이 기회에 명나라통치배들의 부당한 위협책동을 짓부셔버리며 더 나아가서 랴오둥일대의 옛 강토를 종국적으로 되찾을것을 결심하고 원정준비를 갖추었다.

드디여 1388년 4월 고려군은 랴오둥지방에 대한 원정을 개시하였다.

랴오둥원정군은 최영을 총지휘자로 하여 5만명으로 편성되였다. 이때 지휘부는 평양에 두고 최영은 왕과 함께 여기에 머무르게 되였다. 그것은 모든 력량이 원정에 동원된 기회에 왜구의 무리가 기여들수 있고 국내에서 복잡한 일들이 생길것을 두려워하면서 최영이 직접 원정에 나가는것을 국왕이 반대하였기때문이다. 그래서 원정군은 리성계와 조민수가 거느리게 되였다.

개경을 떠난 리성계의 원정군은 5월에 압록강가의 위화도에 도착하였다.

그에 앞서 니성(창성), 강계 등지를 떠난 선봉부대들은 이미 압록강을 건너 랴오둥지방으로 진격하여 적들을 족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고려정부에서는 주력부대들이 빨리 진격할것을 명령하였다.

전반적인 정세는 매우 좋았고 고려군사들의 사기도 높았다. 그것은 이 지방의 명나라군사들이 대부분 북쪽의 원나라세력과 싸우고있어 방비가 매우 약하였기때문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을 야심을 품고있던 역적 리성계는 자기의 목적을 실현해보려고 장마를 구실로 압록강을 건늘수 없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었다.

리성계는 원래 처음부터 원정을 반대하던자였다. 그는 마치나 이 원정이 시기를 잘못 선택한것처럼 떠들었고 또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까지 떠벌였다.

그러나 랴오둥원정에 대한 최영장군의 정당한 립장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고 원정은 끝내 진행되였던것이다. 이렇게 되자 리성계는 옛 땅을 되찾으려는 고려인민들의 념원과는 반대로 오히려 이것을 제놈의 권력탈취에 리용하려고 하였다.

리성계는 마침내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개경으로 쳐들어왔다.

이 소식을 들은 최영은 력량을 총동원하여 리성계의 반란군을 막으려고 하였으나 력량상 차이로 개경은 끝내 반란군에 의하여 점령당하였다.

리성계는 자기의 적수인 최영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고 왕을 강화도로 쫓아낸 다음 9살짜리 허수아비왕을 올려앉히고 자기가 모든 권력을 틀어쥐였다.

이것을 력사에서 위화도회군(위화도 군사돌림)이라고 한다.

랴오둥원정은 그때의 력사적조건에서 매우 정당하고 충분히 가능한것이였다. 그것은 랴오둥원정이 단군조선이후 우리 나라의 옛 땅을 다시 찾으려는 인민들의 세기적념원의 반영이기때문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성계는 고려군의 랴오둥원정을 자기의 더러운 정권야욕실현을 위한 목적에 리용함으로써 이 원정을 말아먹고말았다.

위화도회군은 리성계야말로 정권야욕을 위해서는 인민들의 념원도, 민족의 리익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력사의 반동, 역적이였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2. 과전법의 실시

리성계일파는 반대파관료들을 잔인하게 탄압하는 한편 왕권탈취를 위한 경제적지반을 하나하나 닦아나갔다.

고려말기에 대토지소유자가 늘어날대로 늘어나고 봉건적토지제도는 여지없이 헝클어졌다.

그러므로 정권을 잡은 리성계일파는 새 왕조를 세우는 조치의 하나로서 사전정리를 하였다. 사전이란 봉건국가가 량반관료들에게 전세수탈권을 넘겨준 땅을 말한다.

사전정리를 한 목적은 새 왕조를 세우기 위한 경제적토대를 강화하며 오랜 량반관료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저들자신이 많은 토지를 나누어가지려는데 있었다.

사전정리는 1388년 6월부터 진행하였다.

리성계일파는 우선 그 소유자의 저항력이 비교적 약하며 또 본래의 소속관계가 명백하지 않은 사전을 몰수하거나 바치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사전들로부터는 3년동안 조세를 받아내게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다음으로 전국의 토지를 다시 조사등록하는 이른바 《량전》사업도 진행하였다.

1390년 1월에 사전정리는 기본적으로 끝났다. 리성계일파는 전국의 토지를 조사하여 새로 국가대장에 등록하고 이전의 토지문서들을 모조리 몰수하여 불태워버렸다.

토지를 장악한 리성계일파는 1391년 5월에 과전법을 실시하였다.

과전법은 량반관리들에게 벼슬등급에 따라 조세를 받아먹을수 있는 땅을 나누어준 반인민적인 토지제도였다.

리성계는 량반관리들의 등급을 18과(등급)로 나누고 제일 높은 등급인 1과의 관리에게는 토지 150결을 주고 제일 낮은 등급인 18과에 해당하는 관리에게는 10결의 토지를 주었다.

그리고 벼슬을 하지 않으면서 지방에서 일정한 세력을 가진 량반지주들에게는 5~10결의 토지를 주었다.

과전은 반드시 경기(수도와 그 주변)지방의 토지로만 주게 규정되였다. 이것은 량반관료들의 토지확대를 미리막기 위한 조치였다.

과전을 경기에만 두면 봉건정부의 통제와 감시를 보다 더 효과적으

로 실시할수 있으며 관료들사이의 토지싸움과 농민들의 소유지에 대한 무질서한 략탈행위를 어느 정도 막을수 있었다.

과전을 받은자들은 그 경작자들로부터 일정한 량의 전세를 수탈할수 있었다.

과전을 받은자는 그 경작지를 마음대로 바꿀수 없으며 그 토지를 팔고사거나 상속할수도 없었다.

과전법은 철두철미 봉건관리들과 량반지주들의 리익을 옹호하는 제도였다.

리성계는 과전법을 통하여 량반관리들의 지지를 얻고 온 나라의 토지와 인민을 착취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였다.

3. 정몽주와 선죽교

선죽교는 고려말엽 역적 리성계의 죄악을 말하여주는 대표적인 유적의 하나이다.

위화도회군후 리성계는 제놈의 정권을 강화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왕자리를 빼앗는데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사람은 모조리 내쫓거나 잡아죽이였다.

그리하여 숱한 사람들이 귀양을 가거나 죽음을 당하였다.

귀양이란 봉건사회에서 《죄인》을 멀리 섬이나 변방 혹은 살기 어려운 지방으로 쫓아보내여 일정한 구역에 갇혀살게 하는 형벌을 말한다.

리성계는 반란이후 우왕을 내쫓고 창왕을 올려앉혔다가 그마저 1년만에 공양왕으로 갈아치웠다.

그러나 리성계는 수시중이라는 높은 벼슬자리에 있던 귀족 정몽주만은 죽이지 않고 자기의 왕권탈취에 리용하려고 하였다.

정몽주는 고려말기의 이름있는 외교가, 정치가였을뿐아니라 유교학자로서도 이름이 높았다.

정몽주는 리성계의 왕권탈취를 완강히 반대하면서 그의 이러한 기도에 응하지 않았다.

이러한 때 리성계가 사냥을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져 크게 상하게 되였다.

정몽주는 리성계일당을 제거할것을 계획하고 그들의 속을 알기 위

하여 《병문안》을 하게 되였다. 리성계의 아들은 정몽주와 술상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그가 자기들과 한짝이 될수 없다는것을 감촉하였다. 그리하여 리성계는 1392년 4월 제 아들 리방원의 졸개를 시켜 개성 선죽교에서 정몽주를 무참히 때려죽이였다.

선죽교는 원래 선지교라고 하였는데 정몽주가 살해된 후 그의 피자욱에서 참대가 자라났다고 하여 《대 죽》자를 써서 선죽교라고 불렀다고 한다.

이 사건은 리씨왕조야말로 피비린내나는 참극속에 나타난 반동적인 정권이였다는것을 잘 보여준다.

그후 리성계는 1392년 7월에 고려 마지막왕이였던 공양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자리에 올라앉았다. 새로 선 리씨의 왕조는 나라이름을 조선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을 보통 리조(리씨왕조)라고 한다.

이리하여 근 500년동안 존재한 고려봉건국가는 멸망하고 리조봉건국가가 세워졌다.

제2절. 고려의 문화

1. 《8만대장경》

재능있고 지혜로운 우리 민족은 고려시기에 벌써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인쇄기술을 가지고있었다.

고려시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써오던 나무판인쇄기술이 더욱 발전하였다.

나무판인쇄는 결이 고운 나무판우에 글쓴 종이를 뒤집어붙이고 글자가 없는 부분들을 칼로 파내여 글자판을 만든 다음 그우에 먹을 발라 찍는 방법으로 진행되였다.

고려에서 이러한 나무판인쇄기술이 크게 발전하였다는것은 굉장히 많은 대장경을 나무판으로 찍어낸것만 보아도 잘 알수 있다.

대장경이란 모든 불교책들을 한데 묶어서 찍어낸 책을 말한다.

11세기에 고려에서는 두차례에 걸쳐 대장경을 인쇄하였는데 이때 그것을 인쇄하기 위해 새긴 나무판은 무려 10만여매나 되였고 그것으로 찍은 책은 1만여권에 달하였다. 이것은 그때로서는 세계적으로도 가장 큰 규모의 인쇄사업이였다. 그러나 이때 만들었던 나무판들과 그

것으로 찍은 대장경들은 봉건몽골침략자들과의 전쟁때에 적들의 야수적인 만행으로 불타 없어지고말았다.

그리하여 고려에서는 13세기 봉건몽골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전쟁시기에 대장경을 다시 찍기 위한 사업을 벌려놓았다. 이 사업은 강화도안에서 무려 16년동안에 걸쳐 진행되였다. 8만여매의 나무글자판을 만들고 그것으로 6 793권에 달하는 대장경을 찍어냈는데 그것이 오늘까지 남아있는 《8만대장경》이다.

《8만대장경》은 봉건통치배들이 불교를 퍼뜨리고 부처의 도움으로 봉건몽골의 침략을 막아보겠다는 허황한 생각에서 만든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고려인민들의 슬기와 재능이 깃들어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었던 우리 나라 나무판인쇄기술의 자랑스러운 모습이 깃들어있다.

2. 금속활자

고려인민들은 나무판인쇄기술의 성과에 기초하여 세계에서 제일먼저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한것도 우리 조선민족입니다.》

고려의 나무판인쇄기술은 그때로서는 매우 발전한것이였으나 그것은 자재와 로력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였다. 한장의 책장을 찍어내려고해도 박달나무나 자작나무와 같은 굳은 나무로 일정한 크기의 나무판을 만들고 거기에 글자를 칼로 한자한자 새겨야 하였다. 게다가 한번 칼질을 잘못하여 글자획이 떨어지면 그 판은 쓸모가 없었다.

고려인민들은 나무판인쇄의 이러한 부족점을 없애고 품이 덜 들고 헐하게 그리고 빨리 인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애쓰던 끝에 나무로 활자를 만들었다.

나무활자는 이전처럼 나무판마다 모든 글자를 다 새기지 않고도 한번 새겨놓은 활자를 여러번 써먹을수 있기때문에 훨씬 편리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품이 많이 들고 또 나무활자는 여러번 쓰는 과정에 인차 닳아서 못쓰게 되군 하였다.

고려인민들은 인쇄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11세기말-12세기초에 고려에서는 금속을 주조하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해동통보, 동국통보 등 글자가 뚜렷하게 도드라진 구리돈을 많이 부어내였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구리돈을 부어내는것과 꼭같은 방법으로 인쇄활자도 금속으로 만들게 되였다.

이리하여 우리 조상들은 마침내 12세기 전반기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최근까지 1423년에 네데를란드와 1450년에 도이췰란드에서 금속활자가 발명된것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인정되여왔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나라는 이보다 300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만들어낸것으로 된다.

금속활자가 쓰이게 되면서 고려에서는 출판업이 크게 발전하여 많은 책들을 찍어냈다.

1170년에 《고문진보대전》이 출판되고 1234년-1241년에는 《상정고금례》가 금속활자로 출판되였다. 특히 1377년 청주의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인쇄된 《직지심경》은 지금 남아있는 금속활자로 출판한 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것으로 널리 알려지게 되였다.

금속활자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는 《직지심경》이 오늘 세계에 남아있는 금속활자본가운데서 가장 오랜 책이라는것을 세계각국에 통보하였으며 주체61(1972)년에 프랑스 빠리에서 진행된 《책의 력사》종합전람회에 이 책을 전시하였다.

금속활자의 발명은 우리 인민의 창조적재능과 지혜로 이루어진 귀중한 과학기술적성과로서 세계인쇄기술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랑스러운 업적의 하나이다.

3. 화약무기의 제작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고려시기에 최무선이 화약을 발명하여 국방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14세기 우리 나라에 무시로 달려들어 로략질을 감행하는 왜구들의 만행을 직접 목격하고 치솟는 적개심을 누를길 없었던 최무선은 왜구를 단매에 때려눕힐수 있는 무기가 없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까와하였다.

그는 자기가 직접 그것을 해결해볼 결심을 품고 연구사업에 달라붙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세나라시기에 선조들이 화약을 만들기 위한 시도들이 있었다.

최무선은 자기 집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실험을 거듭하였다.

그는 꾸준한 노력과 피타는 탐구로 10여년을 하루와 같이 연구사업에 열중하였다. 마침내 1373년 10월 화약의 기본성분인 염초를 만드는 법을 알아내고 여기에 류황과 버드나무재를 섞어 화약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최무선은 화약을 발명한데 그치지 않고 여러가지 종류의 화약무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힘썼다. 그는 봉건정부에 제기하여 화통도감이라는 기관을 내오게 하고 자신이 책임자가 되여 여러가지 화약무기를 대대적으로 만들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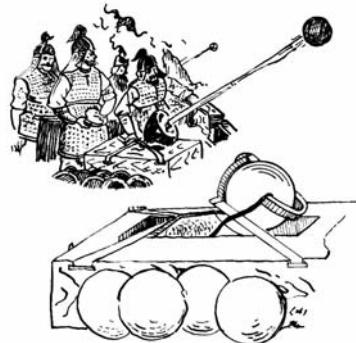
최무선이 만든 화포

이때 만든 대표적인 화약무기로서는 대장군포, 2장군포, 3장군포, 륙화석포, 화포, 신포, 질려포 등 여러가지 포들과 철탄자, 화전, 철령전, 류화 등의 포탄 또는 불화살들이 있었다.

또한 낡은 형태의 포들을 개조하는 사업도 힘있게 벌리여 포탄을 종전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쏠수 있게 하였다.

최무선은 화약무기들을 배우에서 사용할수 있도록 싸움배들의 구조도 개조하고 화포를 쏠 때에 배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과 습기로부터 화약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도 창안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화약무기를 함선에 설치하여 바다싸움에 처음 리용한 전투는 1380년 진포해전이였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포를 사용한 바다싸움은 1571년에 있었다. 이에 비하면 진포해전은 거의 200년이나 앞선것으로 된다.

4. 목화재배의 첫 력사

문익점은 14세기에 사신일행을 따라 원나라에 갔었다. 원나라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주어 억류시켜놓고 앞으로 그의 조국인 고려를 침략하는데 안내자로 리용하려고 꾀하였다.

문익점은 애국의 지조를 굽히지 않고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그러자 원나라황제는 문익점을 기후풍토가 나쁘고 맹수가 욱실거리는 열대지방에 류배보냈다.

이때 명장 최영을 비롯한 고려인민들은 여러차례에 걸치는 원나라의 침략을 물리치고 적들에게 강한 타격을 안겼다. 원나라황제는 하는수없이 굴복하여 문익점을 놓아주지 않으면 안되였다.

문익점은 목화씨를 구입해다가 재배하여 조국인민들의 애국적인 투쟁에 보답하려는 결심을 가지게 되였다.

원나라에서는 유익한 공예작물인 목화가 다른 나라에 새여나가는것을 엄격히 통제하고있었다.

방도를 모색하던 그는 신통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것은 목화씨를 붓대속에 감추어가지고 가는것이였다. 그것은 당시 류배지에 오거나 풀려나오는 《죄인》의 행장은 오직 한두권의 책과 붓대만 허락하고있었기때문이였다.

문익점은 끝내 10알의 목화씨를 가지고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목화씨를 경상도 진주에서 농사를 짓는 장인 정천익에게 주어 심게 하였다.

그런데 첫해에는 그것을 가꾸는 방법을 잘 모르는데다 기후차이로 하여 다 죽고 한그루만이 살아남았다.

문익점과 그의 친척들은 거기에서 얻은 100여알의 씨앗을 잘 심고 가꾸어 3년만에는 고향사람들에게 목화씨를 나누어줄수 있게 되였다. 그후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목화가 점차 넓은 지역으로 퍼져가면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그후 문익점과 그의 가족들은 목화송이에서 씨를 뽑는 씨아와 솜으로 실을 뽑는 물레를 만들었다.

그후 고려인민들은 베틀을 더욱 완성하여 무명천을 짜내는 방법을 창안하였다.

목화가 널리 재배되게 된것은 인민들의 생활에 큰 도움을 주었다.

그전까지 옷감으로는 모시, 명주와 같은 천들이 있었는데 이런것들은 모두 량반들이 차지하였다. 그러므로 인민들에게는 추운 겨울에도 성글고 빳빳한 베옷밖에 차례지지 않았다.

그러나 목화를 심어 무명낳이를 하게 되면서 많은 지방들에서 점차 무명이 주요한 옷감으로 되였고 겨울옷이나 이불에 솜을 넣게 되여 추위를 막을수 있었다.

무명옷을 입게 된 우리 인민들은 문익점의 공적을 높이 평가하였다.

5.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12세기 김부식이 쓰고 《삼국유사》는 13세기 일연이 쓴 세나라시기의 력사책들이다.

고려시기에는 력사책을 편찬하는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되였다.

그것은 봉건통치배들이 자기들이 실시한 반인민적인 정치가 마치도 인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인듯이 꾸며놓고 이전의 왕들이 인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경험을 참고하려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가운데서 오늘까지 전해오는 대표적인것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삼국사기〉는 귀중한 민족고전의 하나입니다.》

《삼국사기》는 그것을 쓴 김부식이 봉건정부의 높은 벼슬을 한 량반관료이고 유교학자였기때문에 봉건통치를 찬양하며 유교도덕을 선전하는 립장에서 엮어져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우리 나라의 력사를 사실과 어긋나게 쓴것이 많으며 인민들의 투쟁과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나 쓰지 않고 왕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들만 엮어놓은것 등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이 책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옛날의 력사책들가운데서 제일 오랜것으로서 세나라시기의 력사를 연구하는 자료로 되고있다.

《삼국유사》에는 세나라의 력사와 함께 고대시기 력사도 들어있다.

이 력사책은 그것을 쓴 일연이 중이였으므로 불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는 결함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 빠진 전설, 설화, 시가 등을 비롯하여 세

나라의 력사와 문화에 대한 자료가 적지 않게 들어있다.

《삼국유사》는 《삼국사기》 다음으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오랜 력사책으로서 우리 나라의 고대중세력사를 연구하는데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한편 고려봉건국가에서는 춘추관이라는 관청을 설치하고 봉건정부의 일지인 실록을 체계적으로 찍어냈다.

실록은 왕이 바뀔 때마다 그 이전 왕의 통치기간에 있었던 력사적 사실들을 묶어서 만든 책이다. 실록은 력사편찬을 맡은 관리들이 많은 자료들과 봉건정부에서 매일매일 기록해온 일지에 기초하여 썼기때문에 그 자료가 방대하고 내용이 자세하다. 그러나 고려실록은 그후 없어져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있다.

6. 설화 《설죽화》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기 위한 우리 인민들의 투쟁이야기속에는 나어린 처녀의 몸으로 남자옷차림을 하고 전장에 나가 용감히 싸운 설죽화에 대한 이야기가 전하여지고있다.

오랑캐와 싸우다 목숨진대도
오히려 웃으며 눈감을수 있으리
후손들도 우리처럼 싸우리라 믿으며
나라 위해 목숨바치는 길 무슨 미련 있으리

이 시는 설죽화가 전사하기 전 멀리서 들려오는 승전고소리에 정신을 가다듬고 목에 둘렀던 흰 명주수건을 풀어 거기에 가슴에서 흐르는 피로 쓴 시이다.

설죽화의 아버지 리관은 거란의 제2차 침입때 통주성을 지켜 용감하게 싸우다가 전사하였다. 이때 설죽화는 열살밖에 안되는 나어린 소녀였으나 침략자들에 대한 끓어오르는 적개심을 안고 남몰래 무술닦기에 힘썼다.

이것을 알게 된 그의 할아버지는 아들을 싸움판에서 잃었으므로 하나밖에 없는 혈육인 손녀를 붙잡아두기 위하여 결혼을 시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설죽화는 오직 원쑤를 복수하고 조국땅을 지켜내려는 한마

음으로 어머니 홍씨와 함께 산속에 들어가 무예를 계속 익히였다.

설죽화가 18살 잡히던 1018년 거란침략자들이 또다시 기여들었다.

설죽화는 곧 싸움터로 달려가려 하였으나 어머니가 중한 병으로 누워있어 나갈수 없었다.

이때 그의 어머니는 자기는 걱정말고 어서 싸움길에 나서라는 글쪽지를 남기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강직한 어머니의 뜨거운 고무를 받은 설죽화는 남자의 옷을 바꿔입고 강감찬장군을 따라 싸움터에 나섰다.

구주성싸움에서 설죽화는 나어린 선봉장으로서 적진속으로 돌진하여 원쑤들을 삼대베듯 쓸어눕히였다. 그러나 설죽화는 마지막결전장에서 그만 적의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마치였다.

설화는 이처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바쳐 싸운 고려인민들의 높은 애국심과 용감한 투쟁모습을 생동하게 펼쳐보이고있다.

반침략애국투쟁을 담은 설화들로는 이밖에도 《강감찬장군이야기》와 《서희장군이야기》, 《박서장군》 등이 있다.

설화들에는 여러가지 환상적인 이야기들도 있으나 반침략투쟁에서 공을 세운 애국명장들에 대한 인민들의 찬양의 감정도 반영되여있다.

고려시기 설화문학과 함께 새로운 형태의 산문으로서 패설문학도 나왔다.

패설문학이란 특별한 격식이 없이 작가가 보고듣고 느낀 사실들을 이야기식으로 자유롭게 표현한 문학을 말한다. 대표적인 작품들로서는 리인로가 쓴 《파한집》, 리규보가 쓴 《백운소설》 등이 있다.

여기에는 력사와 지리, 풍속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내용을 담은 짤막한 산문들이 들어있다.

7. 리규보와 그의 시

바야흐로 하늘엔
서리였던 독기가 가시였는데
어찌하여 이 겨울에
번개치느냐

번개야 너
원쑤의 머리를 내리치려마
그러면 제철은 아니로되
때 맞다 하리로다

반침략애국정신이 힘있게 맥박치고있는 이 시는 13세기 고려의 이름있는 시인이였던 리규보가 쓴 《10월의 번개》이다.

리규보는 량반출신으로서 어려서부터 직심스럽게 공부를 많이 하였고 현실에 대한 탐구심이 매우 강하여 일정하게 진보적인 사상도 가지고있었다.

그는 봉건통치배들의 비위에 거슬려 여러번 벼슬에서 떨어져 지방의 낮은 벼슬자리로 쫓겨앉군 하다가 나중에는 부패한 사회를 등지고 산촌에 숨어살았다. 이 과정에 농민들의 비참한 생활처지, 봉건통치배들에 대한 인민들의 반항심도 잘 알게 되였다.

리규보는 생의 전 기간에 많은 시들과 글을 썼다.

우수한 작품으로는 《10월의 번개》외에도 《군수 몇이 뢰물을 받다가 죄를 입었다는 말을 듣고》, 《전승소식》, 《포구의 작은 마을에서》 등을 들수 있다.

고려시기 창작된 시가작품들에는 이밖에도 12세기 고조기가 지은 시 《싸움터의 님에게》도 있다. 작품에서는 싸움터에 나간 남편을 그리면서 원쑤를 물리치지 않고서는 돌아오지 말것을 간절히 당부하는 녀인들의 애국적인 감정세계를 펼쳐보이고있다.

또한 참요 《묵책요》, 《소가 영각을 하니》, 민요로서 《참새새끼》와 《그물에 걸린 참새》 등이 있다.

참요는 비유법을 써서 통치배들의 썩은 정치와 부화한 생활을 폭로한 시가의 한 형식이며 민요는 인민들이 로동과 생활속에서 체험한 사상감정을 반영하여 창작한 노래를 말한다.

8. 고려자기

세상사람들로부터 천하의 제일이라는 높은 찬양을 받을뿐아니라 봉건시대 세계도자기력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걸작품으로 널리 알려진 고려자기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탐구심이 매우 강하였던 고려인민들은 선조들이 이룩한 도자기공예기술의 성과를 이어 깊은 탐구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아름다운 모양과 부드럽고 우아한 색갈, 섬세한 치레와 아담한 문양을 가진 가장 훌륭한 자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고려자기에는 푸른 자기와 흰 자기를 비롯하여 여러가지가 있으나 가장 이름난것은 비색자기이다.

비색자기란 옥돌의 하나인 비취옥의 빛갈과 같은 푸른 자기라는 말인데 사실은 옥빛갈보다 더 맑고 은근한 록청색의 아름다운 자기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의 깨끗한 마음씨와 조선의 맑은 가을하늘빛을 담은 민족적인 정서가 진하게 풍기는 빛갈로서 고려비색자기밖에는 찾아볼수 없는 고유한것이다.

고려자기

그러기에 예로부터 사람들은 고려자기의 아름다운 빛갈을 두고 비온 뒤끝의 맑고 푸른 하늘빛과 같이 산뜻하고 깊은 산중의 맑은 물과 같이 깊고 그윽하며 우렷한 달빛처럼 깨끗하고 은은하다고 하면서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고려의 자기기술자들은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비취색을 발견하였다.

비취색은 물감을 발라서 얻어지는 색이 아니라 도자기의 겉면에 바르는 유약을 잘 조절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구워내야만 비로소 얻어지게 되는것이였다.

고려자기의 아름다운 색갈에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취미와 깊은 정서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고려사람들은 또한 다양한 무늬장식수법도 창안하여 자기의 품위와 공예미를 한층 더 돋구었다. 그들은 자기에 상감법, 오목새김(무늬박이), 돋을새김, 뚫음새김 등 여러가지 문양장식수법을 적용하여 무늬를 새겼다. 그가운데서 상감법은 고려자기에만 고유한것이다.

상감수법이란 그릇겉면에 홈을 파서 무늬를 새기고 거기에 흰 흙과

검은 흙, 붉은 흙 등으로 메꾼 다음 그우에 자기물을 발라 구워내는 수법이다.

상감수법으로 새긴 문양은 매우 다양하고 아름다왔다.

버드나무가지들이 휘늘어진 강기슭에서 쌍을 지어 놀고있는 원앙새나 물오리를 새긴것도 있고 구름과 학, 꽃과 나비 등을 새긴것도 있다. 아름다운 문양들은 그릇의 푸른 바탕과 잘 어울려 우리 나라의 아름다운 자연풍경이 자아내는 그윽한 정서를 잘 나타내였다.

고려자기는 또한 가지수가 많고 생김새도 다양하다.

재능있는 고려의 도자기공들은 그릇의 모양을 쓰임새에 따라 여러가지로 만들었다. 참대순과 조롱박, 참외와 같은 식물의 모양을 본따서 주전자를 만든것, 비둘기나 원앙새, 오리와 같은 동물을 본따서 만든 붓꽂이 등은 볼수록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이처럼 고려자기는 그릇으로서의 쓸모를 갖추면서도 색갈과 문양, 모양이 아름답게 잘 어울려 그릇 하나하나가 나무랄데 없는 높은 수준의 예술품이다.

당시 고려자기가운데서 우수한것들은 모두 봉건통치배들의 사치생활에 리용되였다.

그러나 그것들은 우리 인민의 훌륭한 예술적재능과 고려문화의 높은 수준을 잘 보여주고있다.

9. 왕건릉과 공민왕릉

왕건릉은 첫 통일국가 고려를 세운 왕인 태조 왕건의 무덤이다. 릉이라는것은 일반적으로 왕이나 왕족의 무덤을 이르는 말이다.

왕건릉은 개성시에 있다. 릉은 만수산줄기에서 남으로 밋밋하게 뻗은 언덕의 중턱에 자리잡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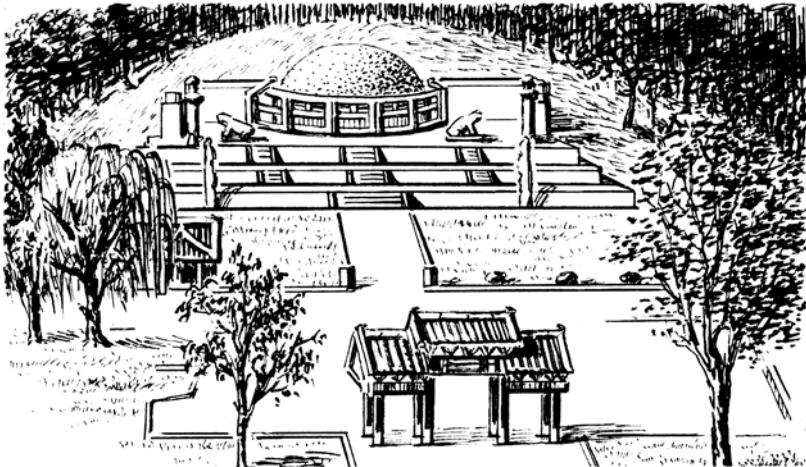
왕릉은 두 구역으로 나눈다. 웃단에는 릉을 비롯하여 란간, 돌범, 망두석, 상돌, 돌등, 문관들을 형상한 조각상 등 돌조각품들이 있다. 아래단에는 제당인 정자각, 무덤의 수리정비내용을 쓴 비석인 기실비, 무덤의 유래와 연혁을 기록한 기적비, 릉문이 있다.

무덤안에는 매화, 소나무, 청룡을 비롯한 동식물을 그린 우아하고

아름다운 벽화가 그려져있다.

왕릉의 돌조각상들과 벽화들은 고려초기 조각예술과 그림미술의 발전을 보여주는 우수한 작품들로 알려지고있다.

특히 왕건릉은 고구려문화의 전통을 계승한 고려문화의 높은 발전수준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는 왕건은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왕이라고 평가해주시면서 오랜 세월속에 파괴되였던 왕건릉을 크게 개건하도록 하여주시였다.

왕건릉

개성시에는 고려의 31대왕이였던 공민왕의 릉도 있다.

공민왕릉은 공민왕의 무덤과 왕비의 무덤이 나란히 선 쌍릉형식으로 되였다. 릉은 나지막한 문선봉중턱에 남쪽으로 향해 놓였다.

릉에서 우수한것은 돌조각품들이다. 이 조각품들은 웅장하고 생동하며 조각수법에서 매우 대범하고 우수한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 중세 야외조각을 대표하는 걸작품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공민왕무덤의 돌조각품들을 보시면서 이 조각이 얼마나 훌륭한가, 참으로 우리 선조들의 재간이 대단하였다고 평가해주시였다.

10. 묘향산 보현사

묘향산 보현사는 고려시기 높은 건축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건축물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묘향산에 있는 문화유산은 우리 선조들의 뛰여난 건축술과 훌륭한 예술적기교를 잘 보여주고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현사는 11세기초의 우리 나라 건축술을 대표하는것으로서 예술적가치가 매우 높은 건축물입니다.》

11세기초에 세운 보현사는 여러개의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그 가운데서 대웅전과 만세루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의 야수적인 폭격으로 불타버렸던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옛 모습 그대로 복구되였다.

보현사의 중심건물인 대웅전은 윤기흐르는 푸른 기와를 이은 지붕과 부드러운 곡선을 이루면서 가볍게 쳐들린 처마, 배부른 기둥과 여러가지 색갈로 아름답게 장식한 단청, 꽃무늬를 새긴 문살 등이 잘 어울려 건물자체가 웅장하고도 화려한 느낌을 준다.

대웅전마당에 있는 8각 13층탑과 만세루앞에 있는 4각 9층탑은 우리 나라의 발전된 중세기 탑 건축기술을 잘 보여준다.

8각 13층탑(묘향산 보현사)

특히 8각 13층탑은 굳은 화강석을 마치 연한 나무를 다루듯이 섬세하게 다듬어 쌓기도 잘하고 장식도 잘하였다.

그리고 탑의 매층 모서리마다 매여단 104개의 풍경(조그마한 종)이 바람이 불 때마다 맑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여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오늘 묘향산 보현사에는 8만대장경과 그 판목들이 보관되여있어 지난날 우리 나라 출판인쇄기술의 발전모습을 찾아볼수 있게 한다.